

안식일학교 수업

2018년

세 천사의 메시지

넷째 천사 사역 - 마지막 경고

제작: 안식일학교부

넷째 천사 사역

제1과 - 영원한 복음

황금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 14:6.

일요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에게 복음이 있더라” Apoc. 14:6.

'복음'이라는 단어는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누가복음 4:18)고 말씀하셨을 때 원래 번역된 복음화(evangelize) 와 동일한 용어는 다른 구절에서도 “좋은 소식” 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 .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10, 11) 천사는 좋은 소식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 1:21).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요일 3:4).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범하는 데서 구원하시고 율법에 순종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지 못한 힘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죄 아래 팔렸도다” (롬 7:14)라고 말했습니다 .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고전 1:24)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좋은 소식은 십계명의 범법과 불순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1) 복음이란 무엇인가? (로마서 1:16)

답: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롬 1:16).

2)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답: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행 16:31). “그리고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행 4:12).

월요일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Apoc. 14:6.

1) 복음은 어디서 전해야 하는가?

답: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 되리라” (마태복음 24:14).

요한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늘로 날아가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사실,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어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좋은 소식,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느니라” (딤후 2:3, 4).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15)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거룩한 사업에 우리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오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 10:6).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 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 다음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

과거에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로마서 10:18). 바울은 그 시대에 “복음이...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 (골 1:23)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도 같은 일을 하도록 부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천사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14:6). 천사 라는 단어는 "메신저"를 의미하는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신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초대에 귀를 기울일까요?

화요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에게 영원한 복음이 있더라 .” 14:6.

영원하다는 말은 항상 존재하며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으로 언급하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계시록 1:8)라고 말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며, 앞으로 올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설교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바울은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갈 3:8)고 선언했습니다. 아브람은 바울보다 거의 2000년 앞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같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일요일 수업에서 우리는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임을 공부했습니다. 창세기는 이 좋은 소식이 아담이 타락한 직후인 에덴에서 전해졌음을 알려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의를 두겠다. 이게 너한테 상처를 줄 거야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 3:15). 이것은 여자의 후손 중 한 분이 와서 뱀 곧 사탄을 물리치시리라는 말씀이었다. 그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후손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버지인 할아버지 요셉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의 부모가 한 명씩 언급됩니다. 본문은 우리를 첫 번째 아버지인 아담에게로 데려갑니다 (눅 3:38).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에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동일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골 2:15). 그는 말 못하는 양처럼 고통을 겪으면서 사탄의 사악함과 그의 정부의 참된 원칙을 공개적으로 드러냈고, 그의 대의를 지지하는 모든 동정심을 거룩한 존재들로부터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의 정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더 좋고, 지혜롭고, 의로운 것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에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뱀이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시적인 상처이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치유될 상처입니다.

창세기에 선포된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 시대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면 그분이 변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동기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1) 현대가 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신 복음을 바꾸시는가?

답: “나 주는 변하지 아니하니” (말라기 3:6).

수요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더라”(계 11:8). 14:6

하나님은 복음이 비밀로 간직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 되기를 원하십니다. 일단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므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에게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지요.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에게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32, 33) 그러므로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이 땅의 구원자로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선교사로 태어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동기는 월급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가 예수 안에서 찾은 구세주를 찾길 바라는 열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주인을 위해 일합니다. “더러운 욕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원하여” (베드로전서 5:2).

1)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거부하는 소심한 자의 몫은 무엇입니까?

답: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불이 붙는 못에 던져지고 유향은 둘째 사망이니라” (계 21:8).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많은 끔찍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부끄러워할까요? 그리스도의 희생의 무한한 값으로 구원받은 인간이 구주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하늘에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이는 우리를 대신하여 치르신 모든 희생을 무시한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도 발견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깨어 간구하라 이는 내가 입을 열면 말씀이 내게 주어져 나로 주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려 함이라”고 권면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매임된 사신이 되어 그 안에서 마땅히 말 할 것을 담대히 말하게 하려 함이라” (엡 6:18-20).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분을 부인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강점은 우리 자신의 약점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만 우리는 마땅히 말해야 할 복음을 선포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계 12:1). 14:6.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의 우리 피를 갚아주겠느냐?” (계 6:10). 8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증인들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예언자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1:10) 하나님께서 말세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작업이 그다지 유망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교자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 설교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요한복음 1:11). 그분은 한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40).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요한복음 15:20).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평가와 다릅니다. 그분께서는 오늘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은혜를 박해하고 거부하는 사람)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거룩함)을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초대를 거절할지라도,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께서 “자기 영혼의 수고의 열매를 보고 만족히 여기실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사

53:11). 그분은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고, 이 사랑은 그들 중 많은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처럼 영혼을 위해 일하고, 그분처럼 필멸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이 끝나면 우리는 영혼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보는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이며, 다음과 같은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마태복음 25:21). 우리 모두가 이 기쁨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Apoc. 14:6.

요약: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으니 그 천사는 공중에 날아가는 것 같으니 이는 그에게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말씀이 있음이니라. 이것이 영원한 복음 이요 좋은 소식이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다는 기쁜 소식이니라 그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 그분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죄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계명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거룩하고 행복한 상태에서 인류가 한때 타락했던 상태로 회복될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다” (레 11:45).

천사는 모든 사람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깨어나서 천사, 하나님의 사자로 행하여 복음을 선포하도록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도록 사람들을 임명하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사자로 영접하였느니라” (갈 4:14)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며, 핍박하는 자들과 원수들과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라도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이 복음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전 15:10).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 일에 충실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그분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2과 - 첫째 천사의 기별 -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황금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Apoc. 14:6,7.

묵상하려면: “특별한 의미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세상에 파수꾼과 빛을 전하는 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멸망해가는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빛이 그들 위에 비취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일, 즉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관심을 빼앗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 이벤트, 페이지. 41

일요일

판결의 발표

1)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합니까?

대답: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는 숨은 피조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답변을 받아야 할 그분의 눈앞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로마서 14:12; 히브리서 4:13)

“내가 계속 바라보았더니 왕좌들이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앉으셨느니라.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았습니다. 그의 보좌와 불꽃과 그의 바퀴와 타는 불이로다. 그분 앞에서 불의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천 명이 그분을 섬겼고, 수백만 명이 그분 앞에 섰습니다. 심판이 앉았고 책들이 펴졌느니라.” 다니엘 7:9, 10.

다니엘은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되고 책들이 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숨은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 12:13, 14) 모든 개인의 모든 일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피상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리라” (롬 2:16). 생각, 의도, 동기,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철저하게 조사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눈앞의 것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삼상 16:7).

우리의 알려진 업적과 숨겨진 모든 업적은 책에 충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방향을 세어 주셨습니다. 내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아 주소서. 그것이 당신의 책에 없습니까?” (시 56:8). “내 형질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주의 눈이 보시고 날마다 이루어진 것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 139:16). “그러므로 영원 전에,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님께서서는 어둠과 감추인 일들을 드러내시리라.

마음의 생각을 나타내시느니라” (고전 4:5).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동일하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보시고 들으시느니라. 그 앞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기억하는 자를 위하여 기념비가 기록되었느니라.” (나뽤.

3:16); “보라... 너희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이 다 내 앞에 기록되었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사 65:5, 6).

모든 사람의 행위를 비교하여 의롭다 함을 얻거나 정죄함을 받는 의의 표준인 법칙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인 십계명입니다.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망할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로되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함을 얻으리라.” (로마서 2:16, 12, 13) 그러므로 우리는 재판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합당한 준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 내내 이 준비 메시지를 공부할 것입니다.

월요일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 큰 소리로 말해요” Apoc. 14:6, 7.

1) 엘리사벳이 성령을 받은 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답: “엘리자벳은 성령이 충만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여인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기도 복이 있도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방문하러 오셨다는 것을 너희가 나에게 어디서 증명하느냐?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태 속에서 어린 아이가 기뻐 뛰놀았나이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그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41-45)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하게 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까지 보존되었느니라.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사벳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큰 소리로 말하는 천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큰 소리로 설교한다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마 27:50). 유대인들은 스테반을 죽이기 전에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7:57, 60) 모든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명확하게. 이 용기는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이 대리인만이 우리가 힘과 용기를 갖고 큰 목소리로 말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는 전도 활동에서 성령의 인도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용해야 하는 분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니” (롬 8:14).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부여주심을 간구하고 그분의 인도에 우리 자신을 복종하여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합시다!

화요일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가 Apoc 천국 한가운데를 날아가는 것을 ... 큰 소리로 이르되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더라 보았습니다 . 14:6, 7.

1)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느니라.” (잠언 8:13; 16:6).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기록된 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신 31:12,13)고 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롬 13:10).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이웃을 압제하지 못하게 하라. 오직 너는 네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니라” (레 25:17).

심판의 법칙은 율법이므로 묵시록의 첫째 천사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교훈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본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예수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 [예수] 가 열매를 맺을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사 11:1, 3).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였고 그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의 경외심을 두리라 ” 32:40, 41. 예수께서는 이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히

8:6). 그는 하나님께 중보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간구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기쁨과 경외심을 우리 마음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헛되이 일하지 않으시고 확실하게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응답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유언장에 비유되는데 유언자의 죽음은 약속의 성취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사망이 개입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언약은 사망 있는 곳에도 효력이 있느니라.” (히브리서 9:15, 17)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으니 유언, 언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경외심을 네 마음에 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으면 그분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을 이루시어 그분의 경외심을 우리 마음에 두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켜 심판 때에 율게 여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안돼요, 우리가 준비할 테니까요!

수요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니 그 ... 큰 소리로 이르되 하나님을 경외하라
에게 영광을 돌리라” Apoc. 14:6, 7.

1) 묵시록에서는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가?

답: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 (계시록 16:9).

만일 그들이 회개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통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범법을 회개하도록 권유하십니다. 회개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신자들이 참된 회개를 경험했다고 언급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근심해서가 아니요 너희가 근심하여 회개하였음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너희로 어떤 면에서든 해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낳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희가 근심하는 것 곧 이 일이 너희 속에 얼마나 많은 근심을 일으키지 아니하였는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사과이고, 얼마나 분개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복수합니까! 이 일에 당신은 모든 일에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고후 7:9-11).

2) 다윗이 참된 회개를 했을 때,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후회만 하였습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새 마음을 구하였습니까?

답: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를 씻어라, 그러면 나는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이다... 나를 믿어라, 오 하나님여 마음이 정결 하시고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 51:1-12)

죄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끄는 이와 같은 회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주 곧 그분의 아들을 마련하신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회개하게 하시느니라” (롬 2:4).

목요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니 그 ... 큰 소리로 이르되 하나님을 경외하라
에게 영광을 돌리라” Apoc. 14:6, 7.

1) 아간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까?

답: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 자복하라 네가 행한
일을 이제 내게 말하라 나에게 숨기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7:19)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실패에 대해 하나님께 책
임이 없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문제는 그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과 그분의 율법과 그분의 정
부는 의롭다. 그러므로 고백에는 죄에 대한 변명이 수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요일 3:4).
죄를 변명하는 것은 죄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범법을 정당화하고 결과적으로 하나
님과 그분의 율법을 정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법이 옳다면 법도 그러며, 법을 주신 분도 그러다는 것이 분명한 결론
이 될 것입니다.

고백은 말을 아끼지 않고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의 잘못을 깨닫고 “모든 백성은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이런 해악을 더하였으니
곧 우리가 왕을 구하는 것이라” (삼상 12: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
요” (요일 3:4). 심판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받을 때 인정을 받기 때
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고 권유합니다. 일단 믿고 순종하
면 심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구원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것에 순종합시다!

금요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니 그 ... 큰 소리로 이르되 하나님을 경외하라
에게 영광을 돌리라” Apoc. 14:6, 7.

1)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답: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는 자기 몸이 이미 죽은 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고 (그가 거의 백 세가 되었기 때문
에) 사라의 태가 죽은 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믿음이 없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롬 4:18-20).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약속의 성취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그의 아내는 이미 배란을 멈췄고 그의 몸은 마비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관점에서 볼 때 그들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믿었고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불가능성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기회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육신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12, 13)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이나 순종하려는 노력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과 조화를 이루도록 변화될 것입니다. 인간에게 그분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심으로써 그분께서는 본성상 그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십니다.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습니다” (롬 7:14).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여기에서도 인간의 불가능성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기회를 만들어 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이 마음을 바꾸시고 율법을 지키게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예수님과 그의 회복의 능력을 믿는 자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고 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토요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니 그 ... 큰 소리로 이르되 하나님을 경외하라
에게 영광을 돌리라” Apoc. 14:6, 7.

1)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답: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31)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알도록 우리에게 권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말씀에서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롬 14:21)는 조언을 찾습니다. 채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능하다면 소, 양, 양, 닭, 생선, 해산물 등 어떤 종류의 죽은 동물의 고기도 사용하지 말아야 함을 배웁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19, 20)

첫 번째 구절은 아직까지 가장 포괄적입니다. 다른 일을 하거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삶에서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니 이는 살아 있는 자들이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후 5:14, 15).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분을 위해 우리 자신을 바치려는 끊임없는 동기가 됩니다. 복음의 말씀인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는 우리가 항상 이러한 동기를 갖고 살아가도록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인간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Apoc. 20:12).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통해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복음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사람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현세적이고 영원한 유익을 위해 이 놀라운 복음을 믿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3과 -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황금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Apoc. 14:6,7.

일요일

심판을 가리키는 예언

1) 첫째 천사의 기별에는 어떤 큰 사건이 선포되어 있습니까?

답: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에 ... 큰 소리로 이르되 하나님을 경외하라
게 영광을 돌리니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다” (계시록 14:6, 7).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늘에서 시작된 심판의 세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에 관해 하나님의 종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이 더욱 확실하여” (베드로 후서 1:19)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심판의 환상에 관한 기록을 발견합니다. 그의 웃은 양털처럼 희었다. 그분의 보좌는 불꽃이었고 그분의 바퀴는 타는 불이었습니다.

그분 앞에서 강이 흘러나와 흘러나왔습니다. 수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만 명이 그분 앞에 섰습니다. 판결이 이루어지고 책들이 펴졌느니라.” (단.

7:8-10). 이것이 시작되는 시간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8장에는 환상에 대한 추가 설명이 나와 있으며 심판이 시작되는 시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내게 나타난 것 후에 또 환상이 내게 보이니 ... 또 다른 성인이 말하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환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됩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했다. 최대 이천삼백 개의 저녁과 아침이 될 것이다. 그러면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 8:1, 13, 14) 7장과 8장의 환상을 간략히 살펴보면 둘 다 같은 주제, 즉 성도들을 박해하는 세력과 그들이 타락한 후에는 하늘 법정이 심판을 위해 앉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장에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때와 법을 변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성도들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그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러나 법정이 재판을 하고 그의 권세를 빼앗을 것이다” (단 7:25, 26). 그리고 8절에서는 “... 계속되는 죄악과 파멸과 성소와 군대를 넘겨준 일에 관한 이상이 어느 때까지 이를 것 같으니까?” (단 8:13).

단 7장 25절: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인바 되리라

단 8:13: 성소 전달

두 표현 모두 성도들의 박해를 가리킨다. 역사는 박해가 중세 교황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서기 538년부터 그 패권을 누렸습니다. 1798년 교황이 투옥되어 세속권을 상실할 때까지. 예언에 의하면 그 후에 심판이 이르리라 .

심판하고 그 권세를 빼앗을 것이요” (단 7:26). 그러므로 하늘에서의 심판은 1798년 이후 어느 시점에 시작될 것입니다. 심판의 시기가 더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는 8장에는 추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짓밟히느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천삼백 주야와 아침까지이리니 그리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단 8:14). 다른 번역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대 이천삼백 저녁과 아침; 그러면 성소가 의롭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성소에서 행해지는 사역과의 연관성이 분명해진다. 그리고 7장에서 우리는 지시된 일이 심판임을 봅니다: “뜰이 앉았고 책들이 퍼졌으니” (단 7:10). 그러므로 다니엘 8장의 예언은 하늘에서의 심판을 가리킨다. 첫째 천사가 선포한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도다”는 이 예언의 성취를 가리킵니다.

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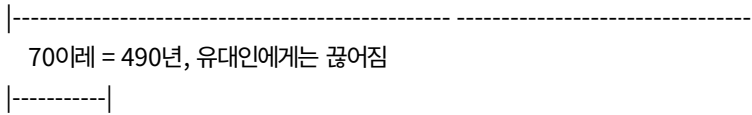
심판을 가리키는 예언 - 계속

다니엘과 그의 동시대 사람들은 심판을 가리키는 예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말한 바 저녁과 아침의 환상이 참되니라. 그러나 당신은 그 환상을 단으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먼 날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환상에 놀랐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8:26, 27). 그 후,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원년”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내 환상에서 그것은 빠르게 날아와서 오후 제사 시간에 나에게 닿았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가르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묵상하고 이상을 깨달아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에 칠십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을 그치며 죄를 끝내며 죄악을 용서하며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묵시를 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언도 하며 지성소에 기름을 붓느니라” (단 9:21-24). 천사는 2300일, 즉 2300일의 기간 중 일부를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칠십 이레를 기한을 정하였느니라.” 이 용어는 법령으로 번역되었으며 원래의 "chatak"은 문자 그대로 절단을 의미합니다. 70이레는 총 2300일에서 갈라진 기간이다. 그것이 2300일 기간 중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것은 시간의 시작, 즉 2300일로부터 계산된 처음 70이레인 것으로 추정된다.

70주 x 일주일의 7일 = 490일

우리는 성경 예언에서 하루가 일년과 같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기간은 모두 490년이었습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해 그래픽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2300 오후와 아침 = 23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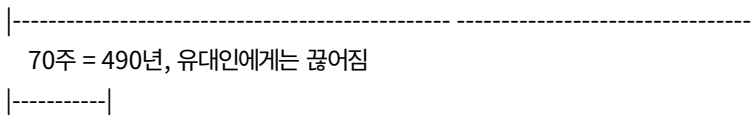
70주를 전체 기간의 첫 번째 부분으로 생각하면, 계산의 시작점 역시 2300일이 됩니다.

1) 2300의 오후와 오전은 언제 시작해야 합니까?

대답: “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래로 알고 깨닫느니라” (단 9:25).

이것이 카운트의 시작점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그 출발점을 제공한다. 역사는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데 두 가지 법령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고레스의 법령이고 다른 하나는 다리우스의 법령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진 명령, 즉 독립 정부를 회복 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는 명령을 지적했습니다. 에스라가 7장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이것은 아닥사스다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만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 에스라에게 문안하노라. 그밖에 네 하나님의 전에 쓰는 것과 네게 바치기에 합당한 것은 다 네가 왕의 창고에서 내리라... 너 에스라가 지혜대로 줄 것이니라 네 소유의 하나님의 법관과 재판관을 세워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누구든지 네 하나님의 법과 왕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에게 형벌을 받으리라 열심으로” (에스라 7:12, 20, 25, 26). 이 명령은 기원전 457년에 내려졌습니다. 그때부터 칠십 이레와 2300일의 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300 오후와 아침 = 2300년



기원전 457년

화요일

마지막 주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반차가 나올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군왕까지 지낼 것이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니라” (단 9:25).

천사는 다니엘에게 출발일로부터 7주 + 62주를 계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총 69주입니다. 70이면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왜 마지막 것을 분리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일종의 예언의 보증인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기름부음받은 왕이 오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왕자이신 예수께서는 예언의 7+62주 끝에 “기름부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역사는 이것이 어떻게 완벽한 정확성으로 달성되었는지 보여줍니다. 69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69주 x 7일 = 483년

예언의 계산은 기원전 457년에 시작되었으며, 483년을 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83년
|-----|
기원전 457년 서기 27년

계산을 하다 보면 $457 + 27 = 484$ 년으로 계산을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날짜를 계산할 때 그리스도 이전부터 이후로 갈 때 0(0) 연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원전 2년, 기원전 1년, 서기 1년, 서기 2년으로 계산됩니다. (0 없이). 457년부터 시작하여 483년을 더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483 - 457 = 26$

그러나 0이 없으므로 숫자는 1년 앞으로 이동합니다: $26 + 1 = 27$ BC. 이제 수학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기만 하면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천사에 따르면 기원전 27년에 왕자는 기름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은 올리브 기름으로 행해졌으며 성령의 부어짐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예수께서 정확하게 기원전 27년에 기름부음을 받으셨다고 알려 주는데, 이는 70이레에 대한 예언에서 기름부음받은 자가 도착할 것으로 표시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약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엄격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훌륭하십니다!

수요일

지난 주 - 계속

마지막 주에 대해 말하면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단

9:27). 그 계약을 맺을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그분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히 8:6)라고 지적합니다. 그 예언은 그 주의 중간에 그분께서 제사를 그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시대에 행해진 제사는 성소에서 동물, 주로 어린양을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29)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희생이셨습니다. 동물의 제도는 단지 아들을 어린 양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생생하게 간직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아들이 십자가 제단에서 죽음을 당했을 때, 동물 희생은 더 이상 계속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사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의식을 거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 일은 이미 이루어졌고, 역사를 복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이 점을 예언했습니다. “그가 주의 중간에 제사를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70년의 마지막 주는 서기 2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3년 반이 지난 마지막 주의 중간은 서기 31년에 이르게 됩니다. 역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정확히 올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천사의 예언은 정해진 시간에 성취되었으며, 십자가는 그 예언이 정확했음을 확증해 줍니다.

또한 중단될 봉헌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빵과 포도주의 제사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드시려 할 때 그것을 상징으로 언급하시며 빵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어 말씀하시되 이것이 내 몸이니라” (고전 11:24). 그리고 포도주에 관해서는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고전 11:2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빵과 포도주는 모두 그분의 희생을 상징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빵과 참된 포도주가 제공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성소의 제단에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러므로 구주께서 아직 오시지 않은 것처럼 그러한 제물을 성소의 제단에 바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의미를 상실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희생에 대한 기억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히브리 성소의 희생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된” 이유입니다 (마 27:51).

바울은 예수께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나니 이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제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느니라” (히 10:8, 9). 히브리인의 성소와 그 직분을 폐하고 하늘 성소의 직분을 세우셨으니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죄인을 위하여 흘리신 피의 공로를 드리시리라.

예수 죽음 483년 기

롬부음받은 십자가

|-----|-----|
기원전 457년 서기 27년 서기 31년

목요일

칠십 이레의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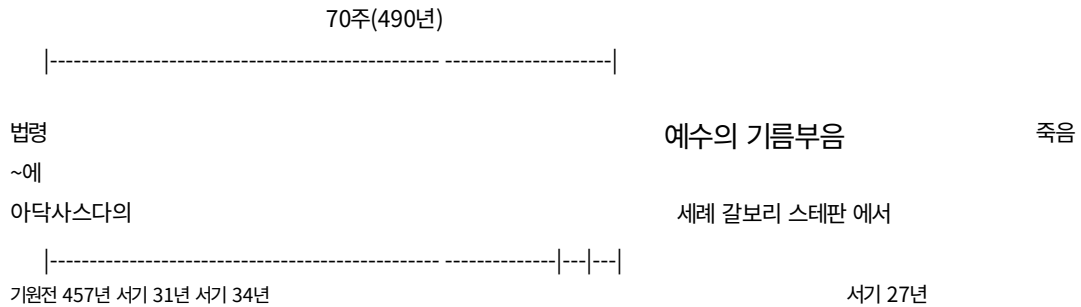
1) 유대인들을 위해 몇 주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까?

답: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단 9:24.

우리는 70주일이 490년에 해당함을 보았습니다. 본문에는 그들이 당신의 도시에 대해 법령이 내려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이었고 그의 도시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지정된 시간이 끝나면 복음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에서 추방될 것이었습니다.

칠십인의 마지막 주기는 예수님의 세례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는 3년 반 동안 설교하다가 서기 31년 주중에 죽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하신 그분의 사역은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 10: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서는 예언의 말씀과 일치했습니다. 그 기간은 마지막 주간, 즉 마지막 7년이 유대인들을 위해 구별된 것으로 예언에 지적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그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이 제시되어야 할 때였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곧 메시지 전파가 더 이상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리라.” (행 1:8). 의미심장하게도, 유대인들이 더 이상 특별히 은총을 받는 민족이 되지 않고 전파 활동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진 순간이 바로 스테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테반을 돌로 쳤습니다. 스테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잠들었으니... 그 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리라.” (사도행전 7:59-8:1; 4). 그는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된 490년, 즉 70주가 차던 서기 34년에 죽었고, 그 후 복음을 전파하던 자들은 유대인들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분리한 기간은 끝났습니다.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 그들에게 전해진 초대는 거절당했지만 이제 지상의 모든 지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몇 년 후, 바울은 복음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다” (골 1:23)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시간에 관한 해석이 정확하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300의 오후와 오전의 끝이 언제인지 안전하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2300의 끝 오후와 아침

1) 2300년의 오후와 오전이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답: “이천삼백 저녁과 아침까지 그리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단 8:14).

우리는 이미 이 기간의 첫 번째 부분을 연구했습니다. 당신의 백성 유대인들 에게 칠십 이레가 정해졌습니다 . 그들은 서기 34년에 끝났습니다. 2300일을 마치려면 1810일이 남게 됩니다.

$$2300 - 490 = 1810\text{일/년}$$

70주는 서기 34년에 끝났습니다. 따라서 2300개의 오후와 오전은 다음과 같이 끝납니다.

$$\text{서기 34년} + 1810\text{년} = 1844\text{년.}$$

이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어” (단 8:14)라는 예언과 같이 됩니다.

칙령 과 성소

아닥사사다 도 저녁과 아침까지... 정결케 되리라

|-----|
기원전 457년 1844년

이번 일요일 공과를 다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거기에서 다니엘 7장과 8장을 비교하면, 2300일은 또한 재판이 시작되어 재판을 시작하는 때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정이 앓고 책들이 퍼졌으니”. 1844년에 2300주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책들이 퍼지기 시작하고 심판이 시작된 것이 이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묵시록의 첫째 천사를 보내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다.” (계시록 14:7) 이번에는 1844년에 왔습니다.

그 이후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전 세계에 강력하게 반향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이 천사의 일에 동참하고 사람들에게 심판이 도래했음을 선포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천사의 사업에 연합되어 있는 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토요일

“그리고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단 8:14).

성소라는 단어는 주로 예수께서 일하시는 하늘에 있는 건물을 가리킨다.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니 이 장막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 8:2, 9:24).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 시작되면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염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가 자기 책에 기록되느니라. 돌이 열리고 책들이 펴질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의 죄에 대한 기록을 지울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은 오늘날까지 수행되고 있습니다 - 죄를 말소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죄를 지울 수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이 땅의 죄에서 돌이켜 하늘에서도 공의롭게 지워져야 합니다.

오늘 죄를 지우고 내일 다시 기록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1844년 이래로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이 모든 죄에서 확실히 돌아서도록 인도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다시 댓글을 달지 않아서 유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언약을 세워 그들의 죄를 도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여호와 의 말씀이니라. 나는 내 법을 그들의 이해 속에 두고, 그것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는 각 사람에게 자기 동료 시민이나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가르쳐서 '주님을 알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모두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어).

8:10-12). 이번 콘서트는 지난 며칠 동안 열릴 예정이다. 언약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죄가 지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이 복된 일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요?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였으니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러나 그분 안에서 예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전 1:19, 20). 아멘은 “그렇게 되십시오”를 의미합니다. 새 언약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그대로 되리라”. 마음으로 그분을 믿고 인내하며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약속을 자기 안에 갖고 그의 죄가 지워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해주세요!

4과 – 조사 판단

창조주를 경배하라

황금 구절: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리라” (롬 14:10).

일요일

성소의 정화

1) 이천삼백일의 오후와 아침이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다니엘 8:14.

답: “이천삼백 저녁과 아침이 될 때까지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지난 주에 우리는 “이천삼백 저녁과 아침이 되어서야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단 8:14) 는 말씀이 가리키는 시간을 발견했습니다 . 여기에서 우리는 예언된 사건인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성소라는 단어는 처음에는 모세가 지은 성막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짓고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 (출 25:8). 성경은 그분이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충실한 모형이라고 알려 줍니다. 모세는 “보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행하라” (히 8:5) 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 정화란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다. 성소의 정화
따라서 발표된 내용은 청소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천삼백 주야가 1844년에 끝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히브리인의 성소는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AD 70년 로마군에 의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정결케 될 건물은 될 수 없다. 지정된 때에 존재하고 온전히 운영될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어 하나님에 의해 제사장이 되셨고 , “성소와 참 장막의 봉사자”가 되셨습니다 .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히 5:10; 8:2). 그분은 “만물을 회복하실 때 ”, 즉 그분이 이 땅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충실한 자들을 영원히 구속하실 때까지 거기에 머무실 것입니다(행 3:21). 요한은 묵시록의 환상에서 예수께서 하늘 성소의 금촛대 옆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누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지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보니 일곱 개의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일곱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니라” (계 1:12, 13). 그러므로 예언에서 정결함을 지적한 성소는 오직 하늘에 있는 성소일 수밖에 없었다. 무엇이 하늘 성소를 오염시켜 정결케 하는 일이 필요하게 하겠습니까? 하늘에 데게타, 오염, 바이러스 등 물리적 불순물이 있다는 생각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 죄의 용서를 구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곳에서 사역하시면서 용서를 구하시고 우리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리십니다. 저것들

그러므로 그것들은 어떤 면에서든 하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로부터 그는 정결케 되어야 한다.

2)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성소는 어느 곳에서 정결케 되어야 합니까? 히브리어. 9:24; 8:2.

답: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같은 하늘에 들어가시니라.”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니 이 장막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월요일

수사재판은 언제 시작됐나요?

1)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회심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사도행전 3:19.

답: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되라.”

3)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간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51:1.

답: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죄를 지워야 한다면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의 행위가 다 하늘 책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방황을 말해주었습니다. 내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아 주소서. 그것이 당신의 책에 없습니까?” (시 56:8). “그 앞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기억하는 자를 위하여 기념비가 기록되었으니” (말 3:16). 그러므로 죄를 없애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 책들에서 죄의 기록을 말소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오늘날 하늘을 더럽히는 것들이므로, 그것들이 지워지면 성소도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성소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책에서 죄를 도말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환상을 통해 “심판이 있고 책들이 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본문의 문맥은 이 장면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옛적부터 늘 계신 분으로 묘사되는 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웃은 눈처럼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았습니다. 그의 보좌와 불꽃...

수천 명이 그분을 섬겼고, 수백만 명이 그분 앞에 섰습니다. 재판이 열렸고 책들이 펴졌다” (단 7:9, 10). 다니엘은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 앞에 사람의 죄를 기록한 책들이 펴져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개종한 사람들의 책을 조사하고 죄를 없애는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심판은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과 함께 시작됩니다. 둘 다 함께 간다. 우리는

오후와 오전 2300시가 정화 작업이 시작된 1844년에 끝났습니다.

따라서 같은 날 수사재판이 시작됐다고 판단된다. 아버지께서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5:22). 각 사람의 형벌, 즉 “죄 사함과 영생” 또는 “영원한 죽음의 징죄”를 결정하는 것은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리라” (롬 14:10). 그분은 자신의 사건을 평가하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화요일

수사법원에서는 어떤 사건을 심리하게 되나요?

1)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답: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요한복음 3:18).

"죄의 값은 사망이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느니라" (롬 6:23; 5:12).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844년부터 시작된 수사재판에서는 그들의 사건에 대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재판에서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사건만 다루게 됩니다. 성서는 악인의 사건이 다른 경우에 다루어진다고 알려 줍니다. 묵시록 천년 끝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부활시키고 그들을 크고 흰 보좌 주위에 모으시어 그들이 그들에 대한 최후의 선고를 듣고 형벌을 받게 하신다. “그리고 나는 왕좌를 보았습니다. 재판하는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그 위에 앉았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을 보았노니 그들은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 그리고 그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니... 천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가서 만국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에게 미혹을 받았으니 이는 저희가 부활하였음이니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리고 나는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리고 바다는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놓았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느니라.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 20:5, 7). 이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심판하는 일은 조사하는 일과는 별개의 별개의 일입니다.

무엇:	1844년 이후의 조사 판	최종 심판
언제:	결	악한 천년 후에
심판받는 사람:	신자	

1844년 시작된 수사재판에서 예수를 믿은 이들의 사례가 평가되고 있다. 악인에 대한 것은 나중에 고려 될 것입니다. 기록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천년 후에 흰 보좌 앞에 직접 나타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어떤 심판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은혜를 선택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의로운 자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판단의 법칙

1) 우리는 무엇으로 심판을 받을 것인가?

답: “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 같이 말하고 행하라 ” (야고보서 2:12).

모든 법원에서 피고인은 법에 따라 재판을 받습니다. 유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도구이다. 범죄자들은 정죄를 받습니다. 하늘의 심판도 마찬가지다. 땅의 법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은 그분의 율법인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서 그분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기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관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 너희가 언제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 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16:28).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녀에게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으니 ” (요한복음 15:10)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이 영원히 유효할 것이라고 확증하셨습니다. “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리라 ” (마 5:17, 18).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자마다 멸망하느니라. 율법 아래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 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로되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 (롬 2:12, 13).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를 평가하는 데만 적합한 것이 아닙니다. “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창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마음 ” (히 4:12). 그러므로 마음이 정결케 된 자만이 심판 때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심판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 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 (전 12:13, 14).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요일

법원에서 어떻게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는 어제 천국 심판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악이 퍼져 있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옹처럼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부정한 자에게서 이끌어 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욥 14:4). 그러나 사람에게에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하느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루카 1,2).

1:37).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변화시키고 심판에서 그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물교훈입니다. 그녀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고,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을 거역하고 자 분노한 랍비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그 여자를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고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나이다. 그럼 뭐라고요?” (요한복음 8:4, 5) 그녀는 형이 집행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었습니다. 법은 분명했습니다. 그의 범법에 대한 증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변명하지.

불쌍한 여자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이며, 당신의 유일한 희망은 구주의 자비와 사랑에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발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쓰셨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큰 자부터 시작하여 나중까지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되 오직 예수와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사 여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8:7-11) 그분의 자비로 인해 예수께서는 현명한 옹호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회개한 여인을 변호하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분의 사랑을 느꼈고 그녀를 그분의 가장 충실한 추종자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죄가 많다 해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변호자이시며 변호자이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1) 예수님은 하늘 심판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어떤 입장을 취하시나요?

답: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을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1, 2)

2)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대언자로 만들 수 있습니까?

답: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18).

예수님을 영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그들의 주장을 옹호하시고, 그들을 이기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금요일

예수를 고백하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로서 행동하시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거짓 희망을 키우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나 어머니는 자녀를 사회에서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그는 그들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더라도 부유한 친구들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 믿음의 창시자, 우리 희망의 이유로 고백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교류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확실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마 10:3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그분을 시인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그분을 부끄러워하고 우리의 믿음을 숨기고, 친구들의 조롱이나 친척들의 박해와 차별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고백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걷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하늘에서 어떻게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소망을 이해하시고 존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서 그분을 고백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늘의 심판에서 고백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이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한다면 그분은 당신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는 자원 봉사만을 받아들입니다. 땅에서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늘에서도 그분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토요일

승리한 이들에게

성경은 이기는 자에게 보상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신실한 자들을 위해 상을 예비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서 같은 지위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나의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고 말씀하셨다. (계시록 22:12)

미래를 생각하면서 요한은 악인들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계 20:13).

사람의 행위는 심판 때에 평가될 수 있도록 책에 기록됩니다. “그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기억하는 자를 위하여 기념표를 기록하였느니라” (말 3:16).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 때에 우리의 이름이 남느냐 아니면 제하여지느냐가 결정됩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니”

삶; 그러면 내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 3:5).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행위는 믿음의 결과, 즉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도구로 그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집트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믿었다는 증거는 그가 그곳을 여행했을 때 주어졌습니다. 진실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표시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 어리석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2:20, 18). 믿음은 “나는 믿는다”고 말하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사람이 예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그분이 명령하는 모든 것에 순종하도록 움직이는 마음에 뿌리를 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예수님의 명을 받은 소경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 구원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졌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천국에는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갈 것인가?

답: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마 7:21).

말씀을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 삶에서 그것을 성취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믿을 때에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우리의 행위가 이를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5과 – 첫째 천사의 기별 – 창조주를 경배하라

황금 구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계시록 14:7).

일요일

창조자는 누구입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에게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한 존재가 홀로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은 누구였는가?]” (사 44:24). “하나님... 그분은... 홀로 하늘을 펴시는 분이요... 우르사, 오리온, 플레이아데스와 남쪽의 방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는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과 셀 수 없는 기사를 행하시느니라” (욥 9:2, 5, 8, 9).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하나님께서 만물을 홀로 창조하셨으나 그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2, 3). “그가 바다에 경계를 정하여 물이 그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신 때에 그가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어 그의 학생이 되었느니라” (잠 8:29, 30).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창조 과정에 참여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요한 1:10). 그러나 그분은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하여” 만물을 만드신 도구이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1:3).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즉 말씀이십니다(요한복음 1:14). 아버지의 창조의 말씀이 그분의 입에 있었고 창조의 능력이 그분의 처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안에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골 1:16). 그러나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홀로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이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계 4:11). 영원하신 존재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최고의 숭배와 숭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 자, 우리 자신을 경배하고 엎드려라.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자” (시 95:6).

1) 창조주는 누구인가?

답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월요일

1) 신은 몇 명이나 있나요?

A.: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잘하십니까?” (야고보서 2:19).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항상 단수형, 즉 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창 1:1)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신을 창조했다”(복수형)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신을 창조했다 - 단수형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 1:26). 성경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말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나와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 구절은 한 사람, 즉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초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참여한 분임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절이 인격체인 하나님을 제시하며, 그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하셨을 때,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출 20:3)라고 자신을 한 인격체로 나타내셨습니다. 나는 “우리 앞에”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앞에”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유리잔을 보고 “이건 나를 위한 것이네요”라고 말한다면 그 유리잔이 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둘이나 셋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이 개념은 사도들에게 매우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저술에서 이 개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딤후 2:5).

“한 하나님 이시요 만유의 아버지시요 만유를 다스리시는 이시니라” (엡 4:6).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라” (고전 8:6). 그리고 당신에게?

화요일

1) 유일하신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대답: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3).

예수께서는 자신의 아버지가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유한"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아버지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복음 10:36). 그가 누구인지 정의하는 데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자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아버지이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사도들의 믿음은 이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라” (고전 8:6).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있기를 원하노라” (요이 1:3).

우리는 예수님 자신의 계시를 부정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구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예수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성경 구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주의한 독자는 성서가 예수가 하나님임을 밝혀 준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감받은 성경은 그 자체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저자들은 성경을 다르게 번역할 때 자신의 믿음과 일치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국 원본에서 분명했던 것을 왜곡하게 되었습니다. 번역본은 결국 원본 성경과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 독자를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에 관해 예수님의 말씀을 고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잘못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는…진리니라” (요한복음 14: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진리를 설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에 대하여: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3).

자신에 대해: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노라” (요한복음 10:36).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자기보다 크신 분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니라”. 요한복음 14:23, 28

수요일

현대 번역과 현대 혼란

어제 공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아버지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그분의 아들이라는 계시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일부 성경 번역본에 오류를 초래하는 텍스트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5:7; 로마서 9:5; 디도서 2:13; 유다서 4; 요한복음 1:1; 요한복음 1:18; 히브리서 1:8. 우리는 그 중 일부에 대해 논평하고 원본에 가장 충실한 번역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문제에 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룹니다.

요한일서 5:7:

“땅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니 이 셋이 하나이니라”라는 구절에 나오는 문구는 성경 원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본문은 당신이 손에 들고 있는 성경에서 대괄호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이 기호: [_ _]). 그리고 예루살렘 성경에 대한 주석은 그 본문이 원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vv. 7-8 은 Vulg.de에 고대 그리스 사본, 고대 역본 및 Vulg.의 최고의 사본에 없는 절개(여기서 아래 괄호 안에)가 추가되어 있으며, 이는 나중에 본문에 소개된 가장자리 광택으로 보입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시니 하늘에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며 이 셋이 한 분이시요 땅에서도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셋은 하나다.” 예루살렘 성서, 3판, 2004년, 1면 2132, 2133 (요한일서 5:7 각주 주석 - 강조 추가)

위의 문장을 추가하지 않고 가장 충실한 원본 버전에 따라 텍스트를 아래에 제시합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한 뜻으로 연합하셨느니라” 요한일서 5:7

요한일서 5장 7절의 본문에는 원본에 속하지 않는 부분이 사람에게 의해 추가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적이라는 증거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추가된 본문 없이 그 구절을 읽을 때, 그것이 삼위일체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매우 분명해 집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 곧 물과 피를 가리킨다.

우리는 여러분의 참고를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 다른 텍스트의 원본에 대한 가장 충실한 번역을 제시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더 심층적인 연구와 원본에 비추어 아래의 모든 구절에 대한 해설을 보려면 Editora 4 Anjos 가 출판한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라는 책을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저희는 조상들이요 그리스도도 저희에게서 강림하시느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지어 다!" 로마서 9:5.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디도서 2:13.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를 나타내신 이는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자이시니라” 요한복음 1:18.

“유다서 4절: 어떤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이 판결을 받은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과 유일하신 주권자 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하게 하는 자들이니라”(유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안에 계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 안에 계셨느니라”(요 1:1).

“주의 보좌는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것이니이다” (히브리서 1:8 - 시편 45:6의 번역).

목요일

성령

기독교의 일반적인 믿음은 성령이 삼위일체의 제3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원은 이교도입니다. 그것은 이집트인, 바빌로니아인, 아시리아인, 페르시아인, 로마인의 숭배에서 유래했으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제국의 공식 종교로 만든 후 로마인에 의해 사도 기독교 교회에 소개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독교 교회가 카톨릭(보편적이라는 뜻)이 되었고, 로마인의 종교이기 때문에 “사도적”, “로마적”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 사도 교회라는 이름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잔학 행위(심지어 아이들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까지)를 명령하는 이교 종교와 태양 숭배를 순수한 기독교와 혼합한 결과이다. 기본 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위일체 신비는 가톨릭 신앙의 중심 교리입니다. 교회 의 다른 모든 가르침은 이것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오늘의 가톨릭 교본, 11쪽)

“우리의 반대자들(개신교)은 때때로 성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어떤 믿음도 독단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개신교 교회 자체는 복음서에 정확한 권위가 없는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 (Revista Vida - 가톨릭, 10/30/50).

또한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그를 사람이나 신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호흡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22).

예수께서는 자신을 성령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을 것이요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3:20, 22) .

바울은 구주를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예수는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해는 굳어졌습니다. 오늘날까지 옛 언약을 읽어도 그 수권이 남아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될 것이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권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우고 있느니라. 그러나 그 중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수권이 벗겨지리라.” 지금까지는 유대인이 주 예수께로 개종할 때 그의 이해력을 가리고 있던 휘장이 제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주는 영이시니” (고후 3:14-17)라고 설명합니다.

주 예수님은 그 영이시다.

금요일

위안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니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너희는 그를 알지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16, 17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미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17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보혜사에 대해 말씀하실 때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이해시키셨습니다. 다음 단어는 이 아이디어를 강화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18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보혜사로 다시 오실 분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여전히 그분이 그분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은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 것이다.” 요한복음 14:19

성령은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눈이 그를 볼 것” (계 1:7)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보혜사의 오심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나를 볼 것이다.”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보혜사로 오심을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는 오직 믿는 자들만이 그분을 영접하는 때일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각 구절의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약속된 보혜사에게 적용될 때 그것은 “성령”이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은 “제3의 하나님”도 아니고, “삼위일체의 제3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아버지”(고전 8:6)가 계십니다.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토요일

참된 세례와 유일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28:19에 근거한 삼위일체론을 주장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 텍스트는 원본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본에 대한 가장 정확한 연구에 따르면 정확한 텍스트는 3세기 작가인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가 언급한 내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28:19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가서 제자를 삼아...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 28:19, 원문에 따르면.

겸손하게 증거를 비교하는 성서 연구생이라면 위의 번역본이 사도행전에 인용된 침례에 대한 언급과 일치하는 유일한 번역이므로 정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37, 38을 인용하겠습니다.

1)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어떤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까?

답: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 그래서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거의 삼천 영혼이 더해졌습니다. ... 모든 영혼 속에 두려움이 있었고 사도들에 의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38, 41, 43.

2) 세례는 몇 번이나 있습니까?

답: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에베소서 4:5.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선포하는 것을 축복하셔서 삼천 영혼이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에 대한 승인의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신 세례였고, 사도행전의 다른 모든 세례도 이 이름, 즉 예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발표된 세례였다고 안전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 이름으로” 세례를 명하셨다. 사도들은 순종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의 전파를 축복하시어 처음 선포되었을 때 삼천 영혼을 더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성경에 나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본문은 어떤 식으로든 뒷받침할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심지어 기괴한 불순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또 다른 부분. 그것은 음악의 오프조(o-key) 음과 같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이 주제를 다루는 모든 구절과 충돌합니다.

성경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근거한 삼위일체론은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시고 사도들이 전파한 진리만이 빛을 발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으니(신과 주가 많음과 같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라”(고전 8:5, 6).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계 14:7)는 첫째 천사의 기별의 부름에서 우리는 유일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초대를 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경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그분을 경배했으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이신 아버지만을 경배합니다.

3) 참 숭배자들은 누구를 숭배할 것인가?

답: “그러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요한복음 20:23). 당신도 그들 중 하나가 될까요?

제6과 - 둘째 천사의 기별

황금절: “둘째 천사가 그를 따라가며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바벨론이여.” 요한계시록 14:8.

일요일

1) 첫째 천사가 자신의 메시지를 선포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답: “둘째 천사가 그를 따르며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계시록 14:8).

땅의 모든 거민에게 기별을 보낸 첫째 천사에 이어 둘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 뒤에 온다는 사실은 그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에 추가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둘째 천사의 기별을 미리 받아들인 사람은 그것을 참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단식 사다리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먼저 걸어보지 않고는 두 번째 단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첫 번째 단계를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 천국의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인식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다른 것.

이 두 가지 진리가 기독교계를 증명합니다. 현대 기독교에 깊이 뿌리박힌 신앙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관찰하기 가장 쉬운 경우는 첫째 천사의 기별의 두 번째 부분인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계시록 14:7)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공부에서 창조주가 한 분이시며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이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는 거의 전체적으로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진정한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지만, 기독교계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신앙을 성경과 비교하는 신실한 신자는 자연스럽게 교회에 관해 “그가 무너졌다”고 말하게 됩니다. 즉, 영적 타락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버려지고 인간의 교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천사의 메시지를 이해한 사람들만이 이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한 하나님, 아버지(고전 8:6)의 존재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유일한 세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류라고 보는 사람만이 자기 교회가 무너졌다고 말할 수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한 메시지에서 어떤 빛도 보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보는 것을 분리주의적이고 분열적인 것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충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천사들의 기별의 빛이 점진적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대로 우리가 진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요일

“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 이여” (계 14:8).

바빌론의 기원

바벨론은 '혼란'을 의미하는 바벨(Babel)이라는 용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용어를 처음으로 접하는 곳은 창세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름이 “번역자” 또는 “그가 번역하다”를 의미하는 니므롯이 사람들이 하느님께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하도록 인도하려고 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는 홍수 직후에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도시에 모이지 않고 온 땅에 잘 분포되어 살기를 바라는 창조주의 소망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 9: 1). 그분의 뜻과는 달리 니므롯은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여러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왕국은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카드와 카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땅에서 앗수르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셈을 건축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나라” (창 10-12).

1) 니므롯이 건설한 최초의 도시는 무엇이었습니까?

답: “그 나라의 시작은 바벨이라” (창 10:10).

니므롯은 자신이 건설한 첫 번째 도시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가장 큰 반항의 본보기가 될 기념비를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일을 하기 위해, 그는 그 도시의 이름을 딴 탑을 건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잘 태워 버리자. 벽돌은 돌로, 역청은 모르타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때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아들들이 건축하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그리고 말하되, 보라, 이 백성은 하나이요, 그들의 언어는 다 하나이니라.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하기 시작한 일입니다. 이제 그들이 하려는 모든 것에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자,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동하여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합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거기서 온 지면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시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 11:3-9).

하나님을 대적하여 건설된 탑과 도시의 이름인 바벨은 혼란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공공연한 반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묵상하기: “니므롯의 도시 건설은 오늘날까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도시에서 인간의 삶의 질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 위에 퍼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옳았습니까? 이것은 부적절한 명령인가, 아니면 사랑의 표현인가?

화요일

고대 바빌론

고대의 악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니므롯을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와 이 결합의 아들인 담무즈도 신격화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어머니, 아들 세 사람이 숭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위격의 삼위일체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바벨 - 바빌론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도시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과 그분의 정부에 대한 억압, 폭정,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이 도시의 뒤이은 함락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활을 당기는 너희들아, 모두 바벨론을 에워싸라. 그를 쏘라, 화살을 아끼지 말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휘두르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으라. 억압하는 자의 칼로 말미암아... 방망이가 온 땅에서 끊어졌도다... 궁수와 활을 당기는 자들을 다 모아 바벨론을 치라. 주위에 진을 치고 아무도 그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의 일한 대로 그에게 갚아라.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도 그대로 행하여라.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대적하여 교만하게 행하였음이니라” (예레미야 50:14, 16, 23, 29).

바빌론에서는 니므롯과 그의 가족이 바빌론의 신들인 벨(Bel), 이슈타르(Ishtar), 마르둑(Marduk)이라는 이름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조각한 형상을 통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빌론의 우두머리 왕은 지상에서 하느님의 대표자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늘의 하나님을 반대하여 통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땅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의 종교 형태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하고 강요하려고 했습니다. 이 행동은 예레미야의 말과 같은 상징적인 언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빌론은 온 땅을 취하게 하는 금잔이었습니다. 민족들이 그의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므로 나라들이 어리석게 되었느니라” (예레미야 51:7).

1)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셨는가?

답: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이 시온에서 행한 모든 악을 내가 너희 목전에서 갚으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51:24).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고 폭정으로 열방을 다스리는 악에 대한 보복으로 완전히 멸망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 도시에 닥칠 멸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멸하신 것과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겠고 인자도 거기 우거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50:40). 사실 바벨론은 멸망되었고 오늘날까지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도시 재건 작업을 시작했지만 미군에 의해 왕좌에서 물러나면서 그의 노력은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다시는 건설되지 않을 것이다.

묵상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원히 번영하는 정부가 어느 시대에 있었습니까? 그 당시 바벨론이 멸망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번덕스러운 행위였는가, 아니면 인류를 향한 사랑의 행위였는가?

수요일

“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 이어” (계 14:8).

현대 바빌론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도시가 다시는 건설되어서는 안 되지만, 고대 도시를 모델로 한 거짓 종교 제도가 일어나 현대에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에게 속아 자기를 기다리는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려고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을 식별할 수 있는 특성을 나타내셨습니다.

1)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바벨론”은 누구입니까?

답: “또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광야로 가시는데 내가 보니 한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앉았으니 그 짐승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더라.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신바라, 큰 바벨론이요,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고 크게 감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3-6

바벨론은 여자로 표현됩니다. 성경적 상징에서 여자는 교회를 뜻한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이 있느니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 로 한 남편 곧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예비하였음이니라.” 고린도후서 11:2.

처녀 여인은 그리스도께 충실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매춘부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배반하는 교회와 반대되는 교회를 대표해야 합니다. 처럼?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큰 바벨론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이마에 “음행의 어머니”라는 딱지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른다. 그에게 다른 교회들은 자매가 아니라 딸이다. 어느 교회가 '거룩한 어머니 교회'라는 칭호를 갖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바벨론을 완전히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그 상징이 아직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면, 그녀에 대해서도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징은 우리에게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단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 외에도 그 역사에 살인 기록의 오점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1억 명이 넘는 사람들: 로마 카톨릭 사도 교회. 기호에 표시된 모든 특성을 충족하는 유일한 제품입니다.

그는 “큰 바빌론”입니다.

목요일

“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 이어 ” (계 14:8).

바빌론 - 어머니와 딸

구약성서는 다른 민족들, 특히 바벨론과 그 정부 체제를 지지한 사람들을 바빌론의 “딸들”이라고 부릅니다. 시편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에돔 사람을 쳤던 날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이르기를 멸하라, 그 기초까지 멸하라 하였음이니이다. 오! 파괴적인 바빌론의 딸,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네게 갚으시는 이가 복이 있도다” (시편 137:7, 8).

에돔 사람들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었으며 야곱은 그리스도에 의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었고 이 이름을 지닌 사람들을 낳았다. 그러므로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두 형제의 후손, 곧 형제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에돔 사람들을 바벨론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육신으로는 바벨을 쌓은 자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을 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폭정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바벨론을 지지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바벨론의 자손이라 불린다. 그러므로 고대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 종교를 강요하는 악한 도시인 어머니 바벨론과 그 영적 딸로서 그 행실을 따르는 딸들이 있었습니다.

1) 둘째 천사의 기별에는 '떨어졌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답: “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 이어 ” (계시록 14:8).

바벨론은 두 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단 한번의 결정적인 추락을 지적합니다. “이제 있는 것은 장래에도 있으리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전 1:9).

바벨론에는 “두 번의 멸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떨어지다”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연히 아무 것도 쓰지 않으십니다. 성경 원문에는 “떨어지다, 넘어지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두 번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표현은 바벨론의 멸망뿐만 아니라 같은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한 사람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수업에서 큰 바벨론이 누구인지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머니 바벨론과 동일한 교리를 가르치고 동일한 원칙을 따르는 다른 종교 조직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에돔인들처럼 일요일, 삼위일체, 영혼불멸, 어머니 바벨론 교회가 설교하는 다른 교리들을 설교하는 그들 모두는 그의 딸들이다. 그리고 그의 타락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도 마찬가지로 알려졌습니다.

2) 둘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한 후 내가 속한 종교 조직이 바벨론의 원칙을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여...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2, 4) .

금요일

죄인의 영혼은 불멸인가, 아니면 필멸인가? 죽은 후에도 의식이 있습니까?

어제 우리는 현대 바벨론 교회가 전파하는 오류 중 하나가 영혼불멸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그분의 계명에 불순종할 때에만 이 상태를 잃게 될 것입니다 .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창 3:1).

2:16, 17).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 동산에서 추방, 그리고 다음 문장의 성취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살았던 날은 모두 구백삼십 년이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창 5:5).

1)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불멸의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습니까?

답: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롬 5:12).

그러므로 불멸의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13:1).

18:20). 죄인의 영혼은 불멸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잃어버린 불멸성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죽도록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야 했습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딤후 1:10). 우리 구주의 죽음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멸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중적인 교회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도 사람의 영혼이 천국, 지옥, 연옥과 같은 곳에서 여전히 의식 상태로 남아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죽음에 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영이 떠나고 땅으로 돌아가느니라. 그날에 그들의 생각이 멸망하리로다” (시 146:4). 그러므로 죽음에는 의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잠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자고 있도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남은 잠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이해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분명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요한복음 11:11-13).

토요일

요약

이번 주에 우리는 둘째 천사의 기별이 첫 번째 기별에 이어 추가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점진적인 빛 가운데 행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천사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대 바벨론이 고대의 것, 즉 형상 숭배, 삼위일체 숭배,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고려하는 거짓 종교 체제의 연속임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현재 로마 카톨릭 사도 교회에서 의인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혼자서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그녀처럼 하나님의 눈에 타락하여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는 딸들과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바벨론의 딸들로 불리며 그들의 멸망도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선포됩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에 따르면 죽은 자의 상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진리가 죽은 자들이 죽은 후에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두 번째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강신술과 대중 교회의 가르침과 어떻게 대조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이제부터는 아무 상도 얻지 못하느니라. 그의 기억이 잊혀졌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은 이제부터 영원히 몹이 없느니라” (전 9:5, 6).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 9:27). 우리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생에서입니다. 사람에게 죽은 뒤에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가르침은 이 시련의 시기에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고 영원히 영혼을 잃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원수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경고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과 다른 오류를 가르치는 조직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하늘의 조연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아니하라. , 그리하여 너희가 그들의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라!” (계시록 18:2, 4)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7과 - 둘째 천사의 기별 - 계속

황금절: “둘째 천사가 그를 따라가며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바벨론이여.” 요한계시록 14:8.

일요일

“모든 나라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마시게 한 바벨론이라.”
요한계시록 14:8.

이 구절은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로 모든 나라를 취하게 될 때를 지적합니다. 시간을 이해하려면 와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1) 예수님은 자신의 교리를 무엇에 비유하셨는가?

대답: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14).

지친 자를 소생시키는 물처럼, 죄의 짐을 지고 영생에 목마른 영혼을 위한 그리스도의 교리입니다. 희망과 용서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분의 순수한 말씀은 물에 비유됩니다. 물은 순수하고 몸에만 좋습니다. 포도주는 물과 달리 그것을 마시는 사람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왜곡시킵니다. 성경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고 말합니다. 그 장막 안에서는 벌거벗은지라” (창 9:21).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 독한 술은 부끄럽게 하느니라. 실수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다” (잠언 20:1).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와 네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 10:9).

물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교리를 상징하므로, 포도주는 영적 이해력을 왜곡하고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짓 교리를 상징해야 합니다. 묵시록은 이러한 비유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포도주를 “마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 수업에서 바벨론이 그리스도의 순수한 말씀 대신 교리, 인간의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교훈함으로써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라는 용어의 의미이다.

월요일

“모든 나라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마시게 한 바벨론이라.”
요한계시록 14:8.

술에 취한 후 매우 폭력적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의 사실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육체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일이 영적인 의미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영원한 파멸을 가져오려는 사탄 자신이 개발한 것입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그분의 영에 의해 영감을 받습니다. 그와 그의 천사들이 진리를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분노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 분노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이 사람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열국으로 하여금 동일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는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동일한 종교적 불관용의 정신에 물들게 될 때가 올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분노하여 진리를 믿고 전파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라는 명령이 입법 법원에서 내려질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끔찍한 시대에 하느님의 종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너희는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또 송사에 있어서 너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을 굽게 하는 증언을 하지 말지니라” (출 23:2).

화요일

“모든 나라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마시게 한 바벨론이라.”
요한계시록 14:8.

성경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교회를 순결하고 남편에게 충실한 처녀에 비유합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니 너도 세움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31:4) 반면에 신실치 못한 여인인 음녀는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공언하면서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임에 틀림없다. “매춘”이라는 단어는 결혼 생활에서의 배신과 불륜 행위 자체를 나타냅니다. 영적인 분야에서도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교회가 거짓 교리를 공식화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바벨론 교회가 만들어 기독교에 도입한 몇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신성한 관점에서 볼 때 매춘 행위입니다. 휴식의 날인 일요일과 영혼 불멸은 이에 대한 두 가지 좋은 예입니다.

묵시록은 모든 나라가 매춘의 포도주를 마실 때를 지적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바벨론이 가져온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공식화한 거짓 교리를 받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매춘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었고, 그런 다음 매춘의 포도주, 즉 자신이 만들어낸 남성의 교리를 제시하여 세상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음녀교회에 대한 정죄는 무엇입니까?

답: “일곱째 천사가 자기 잔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성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루었도다 하더라 하나님은 큰 바벨론을 기억하사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시고 큰 우박을 내리시니라 거의 한 달란트에 달하는 돌들이 하늘에서 사람들 위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계 16:17, 19, 21).

구약에서 매춘죄에 대한 형벌은 돌로 치는 것이었다.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 정죄될 때 사람들이 한 달란트 무게의 돌로 돌을 맞을 것이라고 알려 줍니다. 한 달란트는 약 34kg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둘째 천사의 메시지를 보내어 아무도 바벨론을 따라가서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그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지 말고, 참된 안식일인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조언을 따르겠습니까!

수요일

“ 모든 나라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마시게 한 바벨론이라.”

요한계시록 14:8.

종교계의 통일

그 예언은 세계적인 배도가 일어날 때를 지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땅의 주민과 통치자들 중 상당수가 종교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매우 먼 일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이교 국가들에서도 종교적 관심이 놀라울 정도로 커졌습니다. 우리는 에큐메니즘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종파와 종교 간의 연합 운동을 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 운동의 최전선에 바로 묵시록의 바벨론으로 비난받는 자, 모든 나라에 매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할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계는 한 목자, 즉 교황님의 무리가 되어 한 머리 아래 모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둘째 천사의 말, 즉 바벨론이 모든 나라로 하여금 그 포도주, 곧 그 교리를 마시게 할 것이라는 말이 정확히 성취됨을 가리키는 사건의 전개입니다.

교황은 다른 모든 교회의 구성원을 별도의 형제로 간주하며, 이들은 자신의 교회인 가톨릭 교회와 연합하여 하나의 몸, 세계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완전한 일치에 이르지 못한 형제들이 기도하기 위해 함께 모일 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들의 기도를 전체 일치 운동의 영혼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공동 기도는 “성도를 이루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일치”, “가톨릭 신자들이 갈라진 형제들과 여전히 일치하고 있는 유대의 진정한 표현입니다.”⁴³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해 정식으로 기도하지 않고 평화와 같은 다른 이유로 기도할 때에도 기도는 그 자체가 일치의 표현이자 확증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할 때 일치의 목표는 더욱 가까워집니다.” 회칙 UT UNUM SINT - 페이지 28

그런데 "가톨릭"이라는 단어는 "보편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에큐메니컬 운동은 모든 교회가 하나, 즉 가톨릭교회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에큐메니컬 운동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와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세계교회협의회(WCC)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가 달성되면 지구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만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그 나라의 공식 종교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온 천사가 지적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 14:12).

당신은 어느쪽에 속할 것인가?

목요일

“ 모든 나라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마시게 한 바벨론이라 .”
요한계시록 14:8.

시민 정부 연합

그리고 그 예언은 종교계만이 연합될 것이 아니라 정부들도 연합할 것임을 확증해 주는데, “모든 나라 사람들” 이 그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도 이 진리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네가 본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짐승과 함께 왕노릇하는 권세를 잠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리라” (계 17:12, 13).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전체 기독교 교회를 열 처녀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번호는 우연히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10”이 10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전체, 총체, 인간의. 열 처녀 = 교회 전체. 우리가 학교에서 받는 최고 성적은 10점이다. 10은 인류 전체를 상징합니다. 묵시록에서 열왕이 자기들의 권세를 짐승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선언했다는 것은 인류와 땅의 모든 왕이 자기들의 권세를 짐승에게 넘겨주겠다는 뜻입니다. 짐승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권세입니다. .

많은 국가에서 정부는 종교적 신념을 옹호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세속 국가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100개 이상의 국가가 바티칸과 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머지않아 전 세계가 바티칸의 권위에 종속될 것입니다. 세계 정치의 움직임은 예언의 성취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벨론은 아직 모든 나라에 물을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톨릭 교회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빠르게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곧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사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도구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에 대항하는 마지막 전투를 위해 우리 영혼의 원수의 깃발 아래 연합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 일하기 위해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열 처녀처럼 잠들어 있습니까?

금요일

“ 모든 나라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마시게 한 바벨론이라 .”

요한계시록 14:8.

모든 나라가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이는 성도들이 이 땅 어느 곳에서든지 핍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각 사람은 마치 지구상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열렬하고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기도에 헌신하여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시간에 우리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 때문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출두할 가능성에 직면했을 때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반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경험은 단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시험의 때에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헌신과 노력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장 큰 시험을 받을 때에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긴급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주와 수년간 동행한 결과입니다.

1) 예수님께서서는 믿음 때문에 죽음의 위험을 직면하게 될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과 약속을 남기셨습니까?

답: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게 하려 하노라.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결코 받지 아니하리라” (계 2:10, 11).

“그리고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28).

아멘!

토요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천사

오늘날 세계 권력을 장악하고 가난한 계층을 상대로 온갖 악을 자행하려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계획을 폭로하는 동영상과 기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이 정보를 먹고 자신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 깨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정보가 적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가올 일에 대해 우리를 준비시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둘째 천사가 사탄이 하고 있는 일만 보여 준다면 우리에게 격려를 거의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서를 보면 둘째 천사가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절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는 성경이 표면에서 발견되는 진리 외에도 더 깊은 보물을 가져온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처음 읽을 때 흡수된 메시지를 가져오는 반면, 이해하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한 다른 메시지도 제공합니다. 창세기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이더라” (창 18:2).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 중 둘은 천사였고, 세 번째는 여호와와 천사라고도 알려진 그리스도였습니다. 세 명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의 탄생과 소돔의 멸망을 알린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역사가 반복됩니다. 세 천사가 약속의 아들 예수의 재림과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창세기의 세 가지는 계시록의 세 가지를 가리킨다. 세 번째는 누구였나요? 그리스도. 두 천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왔지만 마침내 그분을 그분과 함께 홀로 남겨 두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얼굴을 돌려 소돔으로 향하여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여호와 앞에 섰느니라” (창 18:22). 그러므로 두 천사는 아브라함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알리는 것 외에도 아브라함이 인터뷰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분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경험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린 천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천사가 종들을 직접적으로 구주를 만나도록 인도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이 무덤에 가서 보니...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있더라. 그러나 그들이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들이 이 일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눅 24:1-6). 그리고 천사 중 한 명이 예수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안다.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와서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보십시오. 그리고 빨리 가서 이 사람에게 말하여라.

죽음에서 부활한 그의 제자들; 보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느니라. 거기서 당신은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8:5-7). 그리고 요즘에는 요한계시록 둘째 천사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곳을 가리켜 줍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지적하면서 그는 에큐메니컬 운동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설립된 어떤 교회에서도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교회들은 모두 스스로 매춘을 하고 주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 모두 밖에서 그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기록된 진리에 순종하여 그분을 섬기기를 원할 경우에만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당신은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둘째 천사의 말은 예수의 예언을 반영합니다.

“주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전통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설립된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 - 재림교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그리고 사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19-23).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8과 – 셋째 천사의 기별

황금절: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하더라. 그의 진노의 잔에 섞임이 없이 준비되었느니라. 그리고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당신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도 밤낮 쉬를 얻지 못하느니라. 성도들의 견인이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계 14:9-12).

일요일

“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르며 이르되...” 계 14:9

“그들을 따랐다”는 말을 통해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처음 두 천사의 기별을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그들을 보완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전체를 이룬다. 첫 번째 천사를 언급하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천사를 보니... 그에게는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더라” (계시록 14:6).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보완하므로 이 기별도 영원한 복음의 일부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세상에 전해지는 복음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세 천사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를 받아들이고 다른 하나를 거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첫 번째 천사와 세 번째 천사를 따르는 것을 보면 메시지가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점진적인 경험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도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전 12:13).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타락한 종교 단체들이 오류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과 자신이 받은 복음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둘째 천사의 메시지를 필연적으로 이해합니다. “무너졌도다 바빌론이여, 무너졌도다!” “나의 교회가 무너졌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작은 예에서 우리는 둘째 천사의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시작된 영적 경험의 진보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메시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오류를 가르치는 종교 단체들이 무너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의 영적 타락을 지적하는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세 천사의 기별은 세 계단의 사다리에 비유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나씩 올라가야 합니다.

1) 마귀의 예언을 통해 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목시?

답: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셋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후서 2장) .1:19).

우리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까요? 우리는 그분의 진보적인 빛 가운데 걸어갈 것입니까? 천국은 우리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말하되...” Apoc. 14:9

좋은 소식?

우리는 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세상에 전해진 복음의 마지막 부분인지를 보았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서 세상에 보낸 좋은 소식의 마지막 부분을 전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책의 마지막 장과 같습니다. 모든 것의 결과와 드라마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복음의 좋은 소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알려 주고, 마지막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특성을 알려 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 14:12).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쏟아짐, 불못, 악인의 멸망을 알리는 메시지가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징벌의 위협이다. 그러나 신성한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올바른 자리에 있는 올바른 표시입니다. 전력망 변압기를 보호하는 울타리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부착된 표지판을 보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전진하지 마십시오, 죽음의 위험. 그런 간판을 보면 그걸 세운 기술자들을 욕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기뻐하기 전에는 그녀를 만나서 감사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메시지가 우리의 생명을 구합니다! 고전압으로 인한 감전사로 인해 손이 닿거나 사망하는 일을 방지해줍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알리지만,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소식,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만일 그들이 “전기 울타리에 닿으면”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알립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여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는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니 이 포도주는 섞이지 않은 진노의 잔에 예비된 것이라. 그리고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당신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도 밤낮 쉬를 얻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 14:9-11.

1)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고려할 것입니까? 제때에 우리를 구원할 좋은 소식입니까, 아닌가?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한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시지는 모든 사람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났음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길 위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으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을 숭배하는 길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 수업에서 이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화요일

“누구든지 짐승에게 경배하고” 요한계시록 14:9.

묵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누구입니까? “짐승”이라는 용어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신비한 동물을 묘사합니다.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요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계 13:1).

국립공원이나 동물원에서 그런 생물을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동물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용어는 상징이다. “짐승”은 누군가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장의 뒷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도록 짐승의 독특한 몇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했습니다” (계시록 13:3). 그녀가 숭배를 받는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힘이다.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느니라” (계 13:5).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인 줄 압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니라” (계 13:7).

그는 왕들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힘만이 모든 특성을 충족합니다. 중세 교황. 이단이라 불리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며, 왕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종교세력이었습니다. 교황의 티아라에는 "VICARIVS FILII DEI"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대리자", "하느님 아들의 대리자"를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이 지상의 신성한 대표자이며 그리스도 자신을 대신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을 거부한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그와 연합하는 자들의 부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불못에서 멸망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마에나 손에나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예비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라.” (계시록 14:9-11) “짐승은... 멸망으로 들어가느니라” (계 17:8). 셋째 천사의 기별은 모든 진실한 사람들에게 그 기별을 따르지 말고 그 운명에 동참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제 시간에 우리에게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스를 바꾸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녀와의 모든 관계를 끊고 우리의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그 짐승이 누구이며,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어디로 인도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짐승에 대해 동정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녀와 함께 할 수 있나요?

수요일

“누구든지 짐승 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요한계시록 14:9.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충실한 사본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이 우상 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짐승"이라고 불리는 힘의 충실한 복제물이지만, 그것은 정확히 짐승은 아니다. 우리는 어제 공부에서 성경을 통해 그 짐승 이 바로 교황권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상징(짐승)이 종교 권력과 정부 권력의 연합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연합의 결과로 국가 권력은 성도들을 죽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가져 온 메모는 이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IX는 1233년 4월 20 일 에 종교 재판의 재개를 알리는 두 개의 교서를 발표했습니다 . 다음 세기에 그녀는 이단을 전파한 적 몇 명을 재판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정죄하고 국가(당시 일반적이었던 "사형"을 적용함)에 넘겨주었습니다.” 출처 : [http://](http://pt.wikipedia.org/wiki/Inquisi%C3%A7%C3%A3o)

pt.wikipedia.org/wiki/Inquisi%C3%A7%C3%A3o - 2007년 9월 27일에 액세스함(강조).

따라서 우리는 짐승이 “종교적” 권력과 “시민적” 권력이 결합한 결과임을 이해합니다. 짐승의 형상은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복제품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종교 권력과 시민 권력의 연합 을 나타내야 합니다. 짐승의 형상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 각 국 정부와 파트너십 협약을 맺은 바벨론 교회의 꼬리를 타고 개신교와 복음주의 교회가 오고 있다. 바빌로니아 교회는 시민권력, 정치권과의 연합을 추구합니다. 개신교도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 가톨릭과 개신교는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 몸으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개신교 연합체인 기독교 연합(Christian Coalition)은 이미 로비 활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에 유리한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 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형상은 과거 교황권의 특징이었던 교회-국가 연합의 사본이기 때문에, 현재는 국가의 개신교 교회들의 연합이다.

짐승 = 교황 교회와 지상 정부의 연합

짐승의 형상 = 땅의 정부와 개신교 교회의 연합.

1)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여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14:9, 10.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메시지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내일 수업에서 봅시다.

목요일

“누구든지 짐승 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 요한계시록 14:9.

“예배”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컬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에 제사하고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 그들은 스스로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경배하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오

이스라엘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나라” (출 32:8). 바울은 고대의 제사에 해당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예배니라” (롬 12:1). 그러므로 예배는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짐승과 그 형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들이 조장하는 숭배를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토요일마다 하느님을 예배하는 집에 참석 하셨습니다. “나사렛에 도착하시어 그곳에서 자라셨습니다.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시니라” (눅 4:16). 반대로 교황권은 일요일 예배를 장려합니다. 오늘날 개신교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일요일에 경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짐승의 상징이 교회와 정부가 연합하여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교황권은 과거에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바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리석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짐승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은 없으나; 그러나 곧 상승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교황권이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교회가 다시 한번 국가 정부에 영향을 미쳐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죽이는 법을 만들게 될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법이 제정되면 우리는 “짐승이 일어났다”, 즉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때 그녀가 장려하는 예배 형식을 취하는 사람들은 짐승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오늘날에도 짐승과 그의 형상, 즉 교황권과 개신교 교회들은 일요일 예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요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동시에 짐승과 그의 형상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날은 언제입니까?

답: “매 안식일 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와서 경배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사 66:23).

금요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요한계시록 14:9.

짐승의 표

우리는 이미 그 짐승이 누구인지, 즉 교황권을 연구했습니다. 당신의 권위의 표, 즉 표시는 무엇입니까?

“일요일은 우리 권위의 표시입니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이전이 이에 대한 증거입니다.” 출처: The Catholic Record, London, Ontario, 1923년 9월 1일(강조 및 강조 추가)

“그러나 개신교인들은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교회의 대변인인 교황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출처: Our Sunday Visitor, Catholic Weekly, 1950년 2월 5일 (강조 추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인간에게 위협된 최악의 심판을 받게 될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경고합니다.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손이나 이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언어는 상징적이다.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성경을 통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너는 이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신명기 6:8). 누구든지 율법을 “손과 이마와 미간에 기호로 삼”은 사람은 율법을 순종했습니다. 이마는 마음, 의식을 나타냅니다. 손은 일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손에 표가 있다는 것은 교회의 계명에 순종하여 일요일에 일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마에 쓴다는 것은 오늘이 넷째 계명의 안식일인 일곱째 날이 아니라 주일임을 진심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안식일을 지지하는 것처럼 분명한 성경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요일을 주의 날로 믿게 되었는지 상상하기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머지않아 오류의 작용, 즉 거대한 속임수 체계가 나타날 것이며 우리 영혼의 원수로부터 큰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살후 2:9, 10)

1) 누가 오류의 역사에 이끌려 거짓을 믿을 것인가?

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류의 작용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을 믿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살후 2:11, 12).

2)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짓을 믿도록 선택하셨는가, 아니면 진리를 믿도록 선택하셨는가?

답: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영의 거룩함과 진리에 대한 믿음을 위하여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고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음이라” (살후 2:13, 14).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믿고 불의를 버리자. 아멘!

토요일

하나님의 인이나 짐승의 표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대조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이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뜰 해 편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일을 맡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그 땅에 인봉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마.” (계시록 7:2, 3)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이다.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겔 20:20). 그러므로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순종하여 일요일에 짐승의 표를 거부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셋째 천사가 그의 메시지를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도록 백성을 준비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신성한 인을 받을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천사의 말을 믿고 그것을 삶에 실천해야 합니다.

시간이 급하다. 머지않아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과 짐승과 그의 우상 사이의 싸움의 마지막 장면을 경험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다. 사탄은 거짓된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열 처녀의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교회가 마지막 시험 직전에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열렬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지런한 연구의 응답으로 예비 기름인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당신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예비유를 축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한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당신도 시험 때에 “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메시지를 듣는 어리석은 처녀들 가운데 속하시겠습니까?

그분을 만나러 나가세요!” (마태 25:6) 당신은 기름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어떤 그룹에 속하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기도와 말씀 연구가 우리 삶의 진정한 특권이자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십시오.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완전히 관심을 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의 성령을 통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순종하는 백성을 찾으러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고, 깨어 있고 살아 있고 활동적인 교회가 되자!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싸움에서 그리스도 편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속에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실천한 경고가 되도록 하십시오. 아멘!

9과 – 셋째 천사의 기별 – 계속

황금 구절: “그는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예비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리고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아포크). 14:10, 11

일요일

분노의 완성

하나님의 진노. “나는 하늘에 크고 놀라운 다른 이적을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마지막 재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루어졌느니라.” Apoc. 15:1.

이 증언은 셋째 천사의 위협을 받는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일곱 재앙이라는 충분한 증거입니다. 물론 이 재앙은 애굽의 재앙으로 대표되며 그 재앙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이고 문자 그대로입니다. 출애굽기를 비교해 보세요.

목사님과 함께하는 7~12장 16.

이집트의 재앙은 이스라엘이 해방되기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일곱 재앙은 성도들의 마지막 해방 직전에 쏟아질 것입니다. 사탄의 기만적인 힘은 애굽의 재앙 직전과 그 재앙과 관련하여 모세에게 저항한 동방박사들에 의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 직전과 그와 관련하여 짐승과 그의 형상을 경배하는 자들은 두 뿔 가진 짐승이 행하는 “이적”과 “기적”에 속임을 당할 것입니다.

일곱 가지 마지막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미가엘이 일어나자마자 “전혀 없었던 환난의 때”를 구성할 것입니다. 다니엘 12:1. 하늘 성소에서의 예수님의 중재는 하나님의 진노가 범죄한 세상에 임하는 것을 막습니다. 네 천사 {Apoc. 7:1-3}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을 때까지 사방의 바람을 유지하십시오. 이 일이 끝나면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벗으시고 “복수의 옷”을 입으실 것입니다(사 13:1). 59:17] 그리고 “흰 구름” 위에서 그분의 위치를 차지하실 것입니다. 14:14], “땅의 곡식을 거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천사가 네 바람을 더 이상 붙잡지 못할 것입니다.

[아포크. 7:1-3] 그리고 마지막 일곱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는 기간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Apoc. 9:18] 일곱째 천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출처: (제임스 화이트, 계시록 XIV의 천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

월요일

자비가 섞이지 않음

“나는 땅에서 일을 해야 할 네 천사가 그 일을 하기 위해 걷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남은 사람들을 연민 어린 눈길로 바라보시며 깊은 연민의 목소리로 손을 높이 외치셨습니다.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그 때에 나는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지극히 밝은 빛이 나와서 예수를 둘러 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나는 예수에게서 사명을 받은 한 천사가 땅에서 할 일이 있는 네 천사에게 속히 가서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위에서 아래로 흔들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 기다리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심을 받기까지 하리라.”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간에게 내린 모든 심판은 자비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는 죄인이 그의 죄에 대한 완전한 형벌을 받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에서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가 그칠 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중재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당신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뿌린 피로써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 그들의 품성을, 그들의 부지런한 노력에 효과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조사 심판이 하늘에서 계속되고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정결해지는 동안, 정결케 하는 특별한 일, 즉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메시지에서 더욱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에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서 방울소리를 들으니, 그분께서 떠나실 때에 흑암이 그 땅 주민들을 덮었습니다. 범죄한 인간과 범죄한 하나님 사이에는 더 이상 중보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 계시는 동안 사람들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과 아버지 사이에 개입하기를 그치자 억제력은 사라졌고, 사탄은 마침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 완전한 지배권을 행사했습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동안에는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곳에서 일을 마치시고 중보가 그치셨을 때, 구원을 무시하고 책망을 미워하는 죄인들의 무기력한 머리 위에 맹렬하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 끔찍한 순간,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끝난 후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각 사건은 이미 결정되었으며 각 보석에는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잠시 하늘 성소 밖에 서 계셨더니 지성소에서 자백한 죄가 죄의 원조인 사단에게 지워졌으니 그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리라.”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그것은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를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요 영생이니라.”

1) 아버지께서 죄에 대해 진노를 쏟으시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쏟아져 나오려고 했습니까?

2)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을 마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어린 양의 진노는 무엇이며, 사람들은 왜 그것을 받게 됩니까?

출처: PE 38; CS 687; CS 114; HR 423; TM 136(스페인어 도서 페이지 매김)

화요일

분노의 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분은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원하는.

“그 곳은 그들에게서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을 만큼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분은 죄가 자신을 아버지와 분리시키고 있음을 느끼셨습니다. 그 심연이 너무 넓고 검고 깊어서 그분의 영이 그 앞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그분의 신성한 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 그는 인간의 죄의 결과를 겪어야 했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는 범법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이전에 취했던 태도와는 다른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그의 고난은 다음과 같은 선지자의 말씀에서 가장 잘 묘사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칼아 일어나 나의 목자와 내 짝인 사람에게 임하라.” 죄 많은 인간의 대속물이자 보증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신성한 공의 아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정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았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자로서 활동해 왔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위한 중보자가 있기를 갈망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다시 한 번 초인간적인 고통의 희생양이 되었고, 기진맥진하여 첫 번째 싸움의 장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고통은 이전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의 영혼의 고통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신맛이 나더라”. 편백나무와 종려나무는 그분의 고뇌를 말없이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그 앞사귀에서 무거운 이슬이 그분의 엎드린 몸 위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자연이 어둠의 세력과 홀로 싸운 창조주를 위해 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빛을 감지 못할 것이며 스스로 그 빛을 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죄인들에게 부어질 때 죄인들이 느끼게 될 감정을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암울한 절망이 그들의 죄 많은 영혼을 수의처럼 감싸고, 그들은 죄의 죄성을 모든 의미에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과 죽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기꺼이 그리고 행복하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늘의 유익을 거부하고 죄의 쾌락과 속임수를 더 좋아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선택을 완수하게 될 것이지만 결국 그들은 그들의 보수, 즉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죽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멸시했던 예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분리될 것입니다. 그들은 행복한 삶을 잃고 순간적인 죄의 쾌락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희생하게 될 것입니다.”

- 1) 진노의 잔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 2) 구원받은 자는 왜 이 잔을 마시지 않겠습니까?
- 3)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잔을 마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출처: 마 26:39; DTG 637; DTG 640; 1JT 227 (스페인어로 된 책의 페이지 매김).

수요일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음

봤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언급된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양 앞에서의 고통은 아포크(Apoc) 1000년 끝에 있을 둘째 사망을 가리킨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20. 악인이 현재의 상태로는 이런 일을 당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어린양 앞에 잠시도 서지 못함이요, 하물며 메시지에 기록된 장시간은 더욱 아니니라. Apoc. 14:10, 11.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로마 경비병들은 “떨었고”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온 하늘이 그의 영광으로 빛나고 땅이 주의 앞에 떨 때에는 그 때에 끊어지지 아니한 자들은 다 마지막 일곱 재앙은 그 광경의 불 같은 영광 앞에 잠시도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불법의 사람”에 관해 말하면서 “주께서 그 입의 영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그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살후 2:8)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마지막 일곱 재앙으로 인한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의 첫째 사망에 대한 공포의 경고뿐 아니라 둘째 부활의 고통의 장면도 포함되어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죽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 어린 양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설 수 있느니라. 그리고 “곡과 마곡”의 무리가 거룩한 성 주위에 모일 때, 심판 집행이 일어날 것입니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렸습니다.

출처: {ND James White, 계시록 XIV의 천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 베어프 23}

- 1) 셋째 천사가 언급한 고통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2) 오늘날 남성에게는 왜 가해지면 안 되나요?

3) 이 고통은 어떤 것인가?

4) 곡과 마곡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목요일

불의 호수

“싸우는 자의 모든 싸움은 떠들썩하고 그 옷이 피에 젖는 일이니라. 그러나 이것은 불에 태워 불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모든 나라에게 임하고 그의 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임할 것임이라. 그분은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도살장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가 악인에게 솟불과 유향을 비같이 내리시리니 타는 듯한 바람이 너희 잔의 몫이 될 것이다.” (이사야 9:5; 34:2; 시 11:6)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보내십니다. 지구가 부서졌습니다. 그 깊은 곳에 숨겨진 무기들이 빛을 발하며 나옵니다. 위협적인 틈새의 모든 부분에서 삼키는 불꽃이 새어 나옵니다. 심지어 바위도 불타고 있습니다. 오븐처럼 타는 날이 왔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원소들이 녹아 없어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도 그슬립니다. (말라기 4:2; 베드로후서 3:10) 땅의 표면은 녹아내린 덩어리, 즉 거대한 불타는 호수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악인들의 심판과 멸망의 때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보복하실 해니라”(이사야 34:8).

악인은 땅에서 상을 받습니다(잠 11:31). “그들은 견인될 것이다. 다가오는 날이 그들을 불사르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라기 4:1)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멸망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의인의 죄가 사탄에게 짊어지면 그는 그 자신의 반역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범하게 한 모든 죄에 대해서도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의 형벌은 그가 속인 자들의 형벌보다 훨씬 클 것이니라. 그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모두 멸망한 후에도 마귀는 계속 살아가며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정화의 불꽃 속에서 악인, 즉 뿌리와 가지가 마침내 멸망됩니다. 즉 뿌리는 사탄이고, 그의 추종자들은 가지입니다.

법의 완전한 형벌이 적용되었습니다. 정의의 요구가 충족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공의를 선포하라.

1) 불못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2) 이 불못은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할 것인가?

3) 악인은 왜 영원히 불사를 수 없는가?

출처: CS 730(스페인어로 된 책의 페이지).

금요일

두 번째 죽음

“죄의 삯은 사망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23). 생명은 의인의 유업이요 사망은 악인의 몫이니라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느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신명기 30:15) 이 구절에서 말하는 죽음은 아담이 정죄받은 죽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아담의 범법으로 인해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생과 대조되는 “두 번째 사망”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사망이 온 인류에게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무덤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구원의 계획에 따라 모든 사람이 무덤에서 나올 것입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리라.” (사도행전 24:15)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22) 그러나 부활될 두 계층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모두 그[사람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되리라.” (요한복음 5:28, 29) 부활되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진” 사람들은 “행복하고 거룩하다”고 불립니다. “이런 두 번째 사망의 권세가 없느니라”(계 20:6). 그러나 회개와 믿음을 통해 스스로 용서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범법의 결과, 즉 “죄의 삯”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다양한 기간과 강도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벌은 마침내 두 번째 사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와 자비에 따라 죄인을 그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의 범죄로 인해 이미 타협되었고 그가 무가치함을 증명한 바로 그 존재를 그에게서 빼앗으시는 것입니다. 한 영감받은 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악인이 더 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그의 처소를 살펴보아도 그는 거기 있지 아니하리라”(시편 37:10; 오바다 16). 악명에 뒤덮인 그들은 뭘 수 없는 영원한 망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와 그로 인한 모든 황폐와 파멸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라들을 꾸짖으시고 악인들을 멸하셨습니다. 당신은 그의 이름을 영원히 지웠어요. 소모된 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원히 폐허가 되었도다”(시편 9:5, 6).

영원을 바라보던 성 요한은 어떠한 불협화음도 없이 보편적인 찬미가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들었습니다(계 5:13). 그러면 끝없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없을 것이며, 선택된 자들의 찬송에 맞춰 지옥에서 경악의 함성을 지르는 불행한 존재들도 없을 것입니다.

1) 어떤 죽음이 죄값을 치르는가?

2) 우리는 왜 첫째 사망으로 죽는가? 왜 의인과 악인 모두가 부활하게 되는가?

출처: CS 599(스페인어로 된 책의 페이지 매김).

토요일

연기는 수세기에 걸쳐 상승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복하실 날 곧 시온을 위하여 보복하실 해가 있으리니 에돔의 강들이 역청으로 변하며 그 땅이 유황으로 변하며 그 땅이 역청으로 변할 것임이니라. 밤이나 낮이나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그 연기가 올라갈 것이다. 대대로 황폐될 것이다. 영원히 그곳으로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이사야 34:8-10).

3. 그러나 이 무서운 최후의 화재 장면은 무한정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지구가 불타고 그 안의 모든 구성 요소가 녹으면, 물로 인해 멸망된 지구가 지금의 지구와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곳은 바로 새 땅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어찌 거룩하고 경건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는 하늘이 불붙어 풀어지고 물질이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위로, 병합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베드로후서 3:10-13).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느니라”(계 21:1).

4. 그러므로 악인에 대한 형벌은 두렵고 오래 지속되며(각 사람은 그의 행위에 따라 형벌을 받으리라) 그 형벌은 마침내 모든 범죄자를 완전히 멸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다 하나님에 의해 멸망될 것입니다(시편 145:20). 그들은 둘째 사망으로 죽을 것입니다. (계시록 21:8; 로마서 6:23; 에스겔.

18:4, 20). 그들은 멸망하고 연기 가운데로 갈 것입니다(시편 37:10, 20, 38). 그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살라져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테살.

1:9; 마 3:12). 뿌리와 가지가 다 없어지면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마태복음 4:1; 오바다 16)

출처: {1855 JNA, TAR 130}(계시록 14:6-12의 세 천사, JN 작성 앤드루스. 1855).

- 1) 연기와 불은 지속되는 동안 영원합니까?
- 2) 각 사람에 대한 처벌은 얼마나 오래 지속됩니까?
- 3) 그들이 결코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10과 – 셋째 천사의 기별 – 계속

황금절: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도 밤낮 쉬를 얻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 14:11.

일요일

“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쉬를 얻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14:11.

하나님의 안식

예배자들에게는 낮이나 밤이나 “쉬”이 없습니다. 이 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악인들이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임을 이해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불뭇은 모든 죄인, 즉 뿌리와 가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사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악인이 결코 누리지 못할 안식이란 이것이 무엇이겠는가? 악인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없는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에게 안식의 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일곱째 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느니라” (히 1:1).

4:9, 4, 10).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쉬신 것과 같이 안식일에 너희도 일을 쉬는 것이다.

1)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의 안식을 언제 제정하셨는가?

답: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의 근본이니라.” (창 2:2, 4).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사람은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쉬셔야 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유익을 위해 이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 (막 2:27). 그는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월요일

축복받은 휴식

1) 하나님께서는 왜 일곱째 날을 축복하셨는가?

답: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이는 그가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 안에서 안식하심이니라” (창 2:3).

2) 일곱째 날은 무엇입니까?

답: “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안식일인즉” (출 20:10).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셨기 때문에 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이날에 있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일곱째 날에 쉬면 얻을 수 있다.

3)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나요?

답: “나는 그들에게 나의 토요일을 주어 나와 그들 사이의 표징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그들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겔 20:12).

신성한 목적은 안식일에 쉴 때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을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자들에게는 자신에 대한 더 깊은 계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인간이 신의 성품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묵상함으로써 신의 성품에 대해 더 많이 배워야 하는 날입니다. 이 계시는 자연에서 발견되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9)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예수님의 인격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에 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성결의 축복임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함과 성품을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우리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결, 이것이 안식일의 축복이다. 그리고 이 축복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행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 12:14)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요일

성스러운 휴식

1)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 외에 무엇을 하셨나요?

답: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 2:2).

“거룩하게 하다”는 것은 신성한 목적을 위해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행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우리의 성화를 촉진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돌보기 위해 오늘을 따로 떼어놓으셨습니다. 토요일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선지자는 성소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동쪽을 향한 안뜰의 문은 옛새 동안 일하는 동안 닫힐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왕자는 문으로 들어갈 것이고... 문설주 곁에 서 있을 것이다...”

이 땅 백성은 안식일에 이 문 어귀에서 여호와 앞에 경배할지니라” (겔 46:1-3).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과 비유와 그림자였습니다(히 8:5).

선지자는 토요일에 하늘 성소의 문이 열린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역하시는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왕자님
로 전환. 하늘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이스라엘에게 화개와 죄 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임금과 구주로 높이셨느니라” (행 5:31).

그러자 그 땅 사람들이 그 문으로 와서 경배합니다. 그런 다음 왕자와 땅의 사람들 사이에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이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도록 구별하신 날입니다. 매주 토요일 예수님은 우리와 개인적인 약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약속된 날에 나타나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8) 하나님께서는 당신처럼 우리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과의 만남을 위한 신성한 목적을 위해 안식일을 따로 떼어 놓기를 기대하십니다. 아,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예가 주어졌습니까! 요즘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녀를 얼마나 멸시하고 있습니까! 토요일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근무일로 간주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우리는 내일 이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수요일

1) 토요일에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대답: “너는 옛새 동안 일하고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출 20:10).

6일 동안 일하는 동안 우리는 토요일에 할 일이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고, 일간 신문을 읽고, 시험 공부를 하고, 땅을 경작하고, 심고, 수확하는 등 모든 활동을 우리가 해야 하는 6일 동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너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다른 활동으로 바쁘다면 예수님을 우리 집에 손님으로 적절하게 맞이할 수 없습니다. 방문에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준비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전날인 금요일은 특별한 준비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나 이야기를 통해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빵은 매일 아침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텐트를 떠나 수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루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버그를 만들고 생성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에는 주인이 두 배의 양을 주어 사람들이 요리를 하고 토요일에는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여섯째 날에 그들이 갑절의 빵을 거두되 한 사람에게 두 오멜씩 거두고 이튿날까지 간직하여 두었더니...

냄새가 나고 벌레도 없더라” (출 16:22, 24).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매주 금요일에 만나를 모으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금요일은 음식을 준비하고 요리합니다. 토요일엔 쉬세요. 토요일 예배를 위한 옷은 금요일에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일은 토요일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일에 찾아오시는 손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다음 토요일의 준비는 주일의 첫날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금요일이 끝날 무렵 하나님의 종들이 지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없이 그렇게 많은 활동을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만일 네가 안식일에 네 밭을 금하여 내 성일에 네 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 여호와의 거룩한 날, 존귀한 날이라 일컬으면 만일 너희가 그를 존경하고 너희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너희 일에 바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내가 너를 땅의 가장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아버지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말씀하셨느니라” (사 58:13, 14).

목요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번 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는지 공부했습니다. 성경의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날에는 그녀를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일요일에도 안 돼요. 축복을 주시는 분께서 그것을 주실 날을 선택하셨고, 그것을 받을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변화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그분이 누군가에게 자신이 행한 일을 바꾸도록 권한을 주신다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나 주는 변하지 아니하니” (말라기 3:6)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은 창세기의 안식일이며 계시록의 시대에도 계속 그러하다.

안식일은 창조 때 제정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 사람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넷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 20:8)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미 모든 계명과 안식일이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신실하고 그의 모든 계명을. 영원무궁토록 견고하게 서 계시느니라” (시편 111:7, 8 - 개정 미국역).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리라” (마태복음 5:17, 18).

신약은 안식일 계명을 다시 제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계명은 구약에서 이미 확립된 것의 타당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전제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바꾸지 않으시기 때문에 두 번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포함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15:10).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참된 제자들에게 그분이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19, 20).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토요일을 일곱째 날, 하느님의 안식, 사랑하는 구주를 만나는 날로 선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해보자!

금요일

이것들은 쉴 틈이 없어

셋째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쉬을 얻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 14:11.

짐승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안식일로 선택합니다. 이 날에는 안식과 성결의 축복이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의 결심은 확고하고 결정적이므로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그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요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들이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본문에는 낮이나 밤이나 쉬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줍니다. 이는 그들이 안식일을 거부함으로써 안식일의 창시자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위안을 주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임재 없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짐승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낄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불안한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는 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사에 불안하니 밖으로는 싸움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니라” (고후 7:5). 짐승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당신의 생명은 당신 앞에서 정지될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밤낮으로 떨어져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누가복음 21:26; 신명기 28:66).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안식을 받아들이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피합니까?

토요일

휴식 상태

이번 주에 우리는 토요일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넷째 계명에도 기록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심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모든 계명을 지키기 전까지는 완전한 안식일 준수자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범하면 모든 죄를 범하였느니라” (야고보서 2:10)라고 말했습니다. 십계명을 모두 지키는 사람만이 안식일의 완전한 “쉼”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십시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29). 안식을 찾기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과 모범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은 계명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으며, 우리가 그분을 밀접히 따른다면 우리도 그분이 걸으신 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안식을 찾을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예수님의 두 가지 특별한 특성, 즉 “온유”와 “겸손”을 언급합니다. 온유한 어린 양은 성난 군중의 모든 멸시, 모욕, 조롱, 매질, 채찍질, 밀침을 불평 없이 참으셨습니다.

침착하게 고통을 겪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의 죄, 즉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는 학대받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느니라” (사 53:7). 겸손하신 구주께서는 체포되시던 밤에 배반자의 발을 씻기 위해 몸을 굽히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의 열매인 이러한 특성을 소유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흡수하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구주와 같이 될 것입니다.

1) 바울은 십계명의 율법의 성취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답: “사랑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롬 13:10).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을 준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안식일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 4:9, 11, 12).

11과 – 셋째 천사의 기별 – 계속

황금 구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계 14:12).

일요일

자유를 수호하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계 14:12).

셋째 천사는 짐승과 그의 우상이 모든 사람에게 불순종의 표를 주려고 할 끔찍한 때를 지적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종교 권력과 시민 권력의 연합체임을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과거에 교황권이 이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짐승이었고 곧 다시 그러할 것입니다: “그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려니와” (계시록 17:8). 그분의 권위의 표시는 안식일인 일요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자신의 표를 부과하려는 짐승의 시도가 국가가 교리를 뒷받침하는 법을 만들도록 하는 교회의 노력을 통해 성취될 것임을 이해합니다. 제한법에 따라 일요일은 휴식일로 지정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되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극심한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행 5:29)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된 대로 하나님을 계속 예배할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 천사는 자유를 수호할 한 무리의 사람들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계 14:12). 다른 번역판에서는 “인내” 대신 “인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인내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곱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분의 권리를 굳건히 수호할 것입니다. 이 방어는 무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사들은 불순종의 군대에 비하면 소수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교회들과 연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그들이 사용하는 유일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을 때가 급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곧 수호해야 할 성경에서 가르치는 종교 자유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월요일

종교의 자유의 원칙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어떤 말로 붙잡을까 의논하니라. 그들의 제자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하나님의 길을 진리로 가르치시며 외모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니이다 남자의.

그럼 우리에게 말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악의를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공물 동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들은 그분께 데나리온 한 닢을 바쳤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형상과 비문입니까? 그들은 대답했다: 카이사르로부터.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마태복음 22:15-21)

바리새인들은 종교 권력을 대표했고, 총독 헤롯의 헤로당은 국가 권력을 대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합당한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분명히 대답하셨다. 가이사에게 바칠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하듯이, 정부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바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일입니다. 계명은 “제칠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출 20:10)이라고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이 아니요 가이사가 정한 것이 아니며 가이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인 가이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것으로 세우신 것을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안식일은 인간과 창조주 사이의 의무이다. 아버지, 어머니, 친척, 직장 상사 등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의 권리를 방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카이사르는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양보해야 하는지에 관해 입법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무엇인지 말하기 위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요일 준수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법은 성경에 어긋나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 그것을 무시하고 그의 양심이 그분의 말씀으로 명령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대로 그분께 순종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카이사르는 종교법을 만들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정부인 가이사는 시민법과 시민의 행동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확립된 원칙입니다. 내일 수업에서 더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화요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의무

1) 바울에 따르면, 세상의 권세들과 관련하여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합니까?

답: “모든 영혼은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는 권세는 없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거스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당하리라... 이 때문에 너희도 조세를 바치느니라. 그들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이니라” (롬 13:1, 2).

2) 어떤 시점에서 우리는 상위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까?

대답: “각 사람에게 마땅한 것을 주십시오. 누구에게 조세를 바치고, 조세를 바치십시오. 누구에게 세금, 세금;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그가 존경하시는 자를 존경하는도다” (롬 13:13:7).

우리는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마땅한 것을 그들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 자체의 본분은 처음 네 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의무에 관한 것이고, 마지막 여섯 계명은 이웃에 대한 인간의 의무에 관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1 -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절 -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임이니라

3-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5 -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6 - 살인하지 말라

7 - 간음하지 말라

8 - 도둑질하지 말라

9 -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10. 네 이웃의 집이나 네 이웃에게 속한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권위에 대한 복종에 관해 말할 때 다른 사람과 관련된 계명만을 언급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예수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카이사르와 정부는 인간과 이웃과의 관계에 관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규율하는 처음 네 계명을 입법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입법권을 자신에게 맡기셨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은

그들은 이 원칙을 사람들 앞에 계속해서 드러내고 그것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민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꾸준히 지킬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라” (계 14:12). 천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행동하실 때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는 책임을 어떻게 담당하시는 지 보여줍니다. 창조주께서는 카이사르가 사람이 양심에 따라 그분을 숭배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3장에서 분명한 예를 발견합니다. 바벨론 왕은 우상, 즉 금 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이 그것에 경배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외치는 자가 큰 소리로 외치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을 말하는 백성들이 너희에게 명령하셨으니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수금 소리를 들을 때에 너희는 시편과 백파이프와 모든 악기를 가지고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다.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요.” (다니엘 3:5, 6).

그러나 그러한 명령은 둘째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형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형상에게 절하지 않고 왕 앞으로 끌려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 당신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라,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실 수 있느니라. 왕이여, 그분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시면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 3:16, 17). 그의 반응은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당신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땅의 정부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는 신성한 원칙만을 선언했을 뿐입니다. 종교에 관한 법령을 공포할 권리는 없습니다. 종교와 국가는 영원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1) 바벨론 왕이 자신의 율법을 어긴 다니엘의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답: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서 급히 일어섰습니다. 그가 그의 보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박된 사람 세 명을 불에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왕에게 대답하라: 왕이여,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네 사람이 풀려나 불 속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으니라” (단 3:24, 25).

하나님께서 이 시련의 때에 그분의 종들과 동행하도록 하늘에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셨으며 이런 방법으로 이교 왕의 사형 명령을 취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에 관한 땅의 법령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책임과 권리는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불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요일 법령과 같이 곧 발표될 종교 법령. 마지막 때에 세상이 그분의 율법을 준수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종들을 거스릴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세상의 법령을 폐지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사람들. 그러므로 가이사는 하느님께 속한 일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 영원히 입증될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목요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요한계시록 14:2

천사가 성도들이 인내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시험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 사이의 마지막 갈등은 며칠 동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왕권을 갖게 될 기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주었으니” (계시록 13:5). 이는 3년 반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은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구원이 약속되었습니다. 짐승은 환난이 끝나면 마침내 패배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이들이 어린양과 싸울 것이며 어린양이 그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택하신 자들과 충성된 자들도 이기리라” (묵시 17:13, 14). 그러나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성도들의 몫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그분의 교회 회원들이 해결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에 직면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분의 백성들이 믿음의 마지막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키우고 계십니다.

1) 환난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대답: “환난 중에도 영광을 누리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롬 5:3, 4).

우리는 환난을 영광으로 여겨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 환난을 직면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서서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서 그분의 정부를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표시입니다.

옴은 땅에서의 자신의 순종이 하늘에서도 논의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옴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죽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온전함을 지키느니라” (옴 2:3).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듣는 자들도 옴처럼 하나님을 의롭게 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될 것이며, 그가 승리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입니다!

금요일

완벽해, 이 지구상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계 14:12).

셋째 천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백성이 있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묵시록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지상에 있을 때가 바로 이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비난해 왔습니다. 그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입니다 (계 12:10).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또한 사람들에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비난합니다.

분명히, 그가 그들이 불순종하도록 유혹한다는 점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참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계명을 지키는 백성을 이 땅에 두시는 그 순간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주장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는 패배했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네 말에 의롭다 함을 받고 판단 받을 때에 이기리라” (롬 2:4) 고 말하면서 이 시대를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앞에서 그분을 의롭게 하는 이 사업에서 인간에게 특별한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오직 우주에 다음 질문에 대한 결정적인 답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분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불공평하신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지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의 형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엡 1:1). 4:13). 그리고 셋째 천사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인도합니다. 그분께서 땅을 가리키시며 “여기 있습니다”라고 확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천사의 말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말이 성취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라고 말할 때 우리를 지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기준을 높이다

오늘날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도덕적 행실 표준에 만족합니다. 이전에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만 언급되었던 죄가 가장 흔한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와 목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탄의 말을 반영합니다. 이는 사실상 적의 승리를 선언하는 셈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의로운 자에게 내리시기 때문이니라

불공정.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무슨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43-48).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닮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보다 적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9)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써만 아버지의 성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롬 8:39). 그것은 갈보리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그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는 구속받은 자들의 과학이자 노래이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의 인격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낮추심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은 신성한 생명의 원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그것을 묵상하고 그 영향력에 저항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흥미롭게 하고, 깨뜨리고, 부드럽게 하고, 개종시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의 선물에는 우리가 하느님께 용서받고 받아들여졌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흡수할 때 우리의 마음은 확장될 것입니다. 사도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너희가 모든 성도와 함께 깨달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을 깨달아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총만하심까지 총만하게 하라” (엡 1:1).

3:18, 19). 그러면 우리는 죽기까지 하나님과 형제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1) 모세가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중재할 때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답: “아!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황금신으로 삼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나를 지워 버리소서” (출 32:31, 32).

모세는 반역자들을 대신하여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고 둘째 사망을 겪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흡수했습니다.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였으므로, 모세를 통해 나타난 이 사랑을 그들의 삶에 온전케 하는 백성이 있을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셋째 천사의 복음을 우리 삶에 받아들여 그가 하늘의 계획대로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원수들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자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해질 것입니다. 아멘!

제12과 – 셋째 천사의 기별

성소의 정결 황금구절: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라” (히 9:14).

일요일

성소의 정화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계 14:12).

셋째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계명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받은 보증을 보존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우리는 받은 것만 지킬 수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가 보증을 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나요? 수세기 전에 주님은 이미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라” 여호와: 내가 나의 법을 그 속에 정하고 그것을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예레미야 31:31-33).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생각과 마음에 율법을 두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그 돈을 그들이 보관할 수 있도록 보증금으로 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약속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사역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으로 지명되어 우리의 중보자가 될 권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신권을 행사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분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실 것입니다 (히 8:6).

1)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언급한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답: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나는 내 법을 그들의 이해 속에 두고, 그것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히 8:10)

이 언약은 예레미야서에서 선포된 것과 동일하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히브리서에 선포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 언약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면서 “보증금”이 사람들의 마음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 성소 의식 체계는 대제사장의 사역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죄인을 위해 수행되는 지속적인 봉사였습니다. 마지막 행사는 종교력의 마지막 날에 거행되었으며 속죄일이라고 불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라. 모든 죄에서 너희가 주 앞에서 정결함을 얻으리라” (레 16:29).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요일 3:4). 그러므로 죄로부터 깨끗해진다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일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일은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은 사람을 율법에 순종하게 하는 사역이다. 즉, 율법을 생각과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정화는 종교적 해의 마지막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화는 죄인들을 위한 위대한 구속 계획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이다. 대제사장과 중보자로 활동하시는 예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고 신자들의 생각과 마음에 그분의 율법을 기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보증금”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내일 이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월요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계시록 14:12)

이스라엘의 성소에서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뿌려진 피에 의해 거룩해지고,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해진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죄를 위해 희생된 동물의 피였습니다. 죄인은 집례하는 제사장이 자신에게 피를 뿌리는 것을 피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교훈이었습니다. 희생된 동물은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동물의 피는 속죄의 죽음을 통해 얻은 그분의 공로를 나타냅니다. 제사장이 예배하는 자에게 동물의 피를 뿌려 거룩하게 하는 행위는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희생 제사를 우리에게 드리는 사역을 상징합니다.

지상 성소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자기에게 피를 뿌리는 것을 보고 자기가 거룩해진 것을 확신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지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보증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의 공로를 보고 감사할 때, 우리는 그분을 우리 영혼의 구주이자 정결케 하시는 분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성령을 받아 우리의 죄로부터 거룩해지고 정결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히브리인들에게 쓴 말로 요약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뿌림으로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더러운 자들을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죽은 행실로 죄를 지었느냐 양심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 하였느니라” (히 9:13, 14).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소에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의 당신의 희생을 가리켜 주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용서받고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으며, 만일 우리가 마음에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거룩해지고 죄에서 깨끗해집니다. 구원은 완전합니다. 마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마실 수 있는 순수한 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듣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오십시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것이니라” (계 22:17).

그토록 큰 구원을 베푸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화요일

믿음으로 받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가 받는 선물인 “보증금”임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맺은 계약, 언약을 통해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희생을 바치심으로써 이를 행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분은 성령으로 선물을 주십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계명을 기록해 주십니다. 이제 현재에 대해 어떻게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셋째 천사는 후기 성도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계 14:12).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 11:1).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그러면 그것이 우리 삶에서 현실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그분의 희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얻으신 공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이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성에는 “부정한 것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계 21:27).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논리적입니다.

1) 예수님께서 바울의 말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십니까?

답: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 1:6).

수요일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느니라” (계 14:12)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용서와 성화를 얻는다는 것을 어제 보았습니다. 셋째 천사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은 후에 관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엡 2:8).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온 세상에 보내어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십니다(요한복음 16:8). 그리고 이 영은 믿음의 영입니다. “이제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고후 4:13).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양심에 가져오는 죄의 확신에 굴복하자마자, 이 동일한 영이 그들의 마음 속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여 그들을 믿게 만듭니다. 성경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롬 8:26)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의 증거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창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와 성화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놔두지 마세요

가게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러 그곳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지 않으려면 단지 찾는 것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집요하게 제공되는 거저 선물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의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토록 큰 대가를 치르신 뒤에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애쓰시며 매 순간 우리가 배은망덕과 불신을 버리도록 설득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끈질긴 작업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1) 예수님은 항상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답: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을 것이요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계 3:20).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마음을 연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성화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받은 믿음의 선물에 감사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세요. 바울은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그것을 그리스도께 받은 믿음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애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딤후 4:7). 후기 성도들은 그럴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 중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나라” (계 14:12)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분을 믿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시험이 오면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이 한 일은 그분의 믿음을 조금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너무나 강해서 아버지께서 그의 곁에 계시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29).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패배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믿음의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분의 사역이 끝나갈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 이 르렀으니 그는 나와 관계할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4:30).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이 자신의 삶에서 성취될 것을 너무나 확신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처형되기 전에 이미 승리했고 천국에 가야 할 것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요한복음 17:11)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천국에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사탄과의 전쟁의 가장 치열한 싸움이 남아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지 패배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 믿음 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 11:1).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믿음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부터 사탄에게 패배할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이 걸으신 대로 걸어가십시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했던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분에게서 멀어졌을 때 그는 넘어졌습니다. 셋째 천사는 후기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신앙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도 갖게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고정함으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이 믿음의 시선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께 고정할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하도록 권유합니다.

금요일

1)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 “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 (히 12:2).

죄를 이기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위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이십니다. 당신에게 구원받을 만큼 충분한 믿음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잊어버리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마음에 믿음을 두실 책임이 있습니다. 시련의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마음속에 뿌리박힌 확신은 우리가 순종의 길을 계속 따르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느니라” (롬 10:10).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봅니까? 성경 읽기. 예, 예수님께서 “나는…진리니라” (요한복음 14:6)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17).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의 일컬음을 받는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계 19:13).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목상합니다. 그분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63)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연구에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바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서 나오는 몇 가지 추가적인 약속을 쌓아 둘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골 3:16)라고 말합니다 .

예수님은 기억 속에 성경을 가지고 계셨고, 이로 인해 그분은 광야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그분께서는 원수의 모든 간계에 대해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살아나고 커질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7).

토요일

명령인가, 약속인가?

“거기에 삼십팔 년 동안 병을 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오랫동안 누워 있는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에게는 아무도 없나이다 나를 수영장에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은 즉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리를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5:5-9)

다음은 이행이 불가능한 주문의 예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앓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걸을 수 없다면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십계명에 담긴 명령도 이와 유사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외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들을 성취하셨음에 틀림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매우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중풍병자는 그 말씀을 명령으로 보지 않고 약속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걸을 수 있다고 믿고, 노력했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명령은 성취된 약속이 되었습니다. 중풍병자가 그 명령에 따르도록 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임이 분명합니다. 그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를 실천하거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의 명령은 약속입니다. 중풍병자처럼 우리도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순종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을 것입니다”.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므로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계명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마 28:18).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마비되었던 마비 환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말씀의 모든 계명이 약속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13과 - 셋째 천사의 기별 - 계속

믿음으로 의롭게 됨

황금 구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계 14:12).

일요일

믿음으로 의롭게 됨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믿는 자의 삶에 성취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것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경험을 알리는 메시지이다. 이 경험을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모든 계명은 다 의로우니이다” (시편 119:172)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믿음으로 계명에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순종적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느니라” (롬 5:12). 그러므로 하나님은 땅을 보시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롬 3:10)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통해 의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역사에 의한 것입니다. 칭의와 용서는 하나이며 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 3:23, 24). 죄 많은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간에게 용서를 제안하십니다 (롬 3:25).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사람은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가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지적함에 따라 우리는 그의 메시지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몇몇 사람이 나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메시지가 셋째 천사의 메시지인지 묻는 편지를 보냈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셋째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최종 사건, 172페이지 - EGW) .

우리는 이번 주에 이 주제를 공부할 것입니다.

월요일

죄에 대한 정의를 베푸는 것 - 하나님의 제안

우리는 선한 행위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롬 6:23).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요일 3:4). 율법은 오늘의 선한 행위가 어제의 죄값을 치르게 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는 정당화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죄인.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해 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 빛을 지고 당신의 아들을 죄인 대신 죽게 주셨습니다. 그 자신은 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멸이시”기 때문입니다 (딤후 1:17). 그러나 그분의 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제안과 자신의 주도로 그는 법이 요구하는 빛을 갚기 위해 죽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 대해 빚진 빛을 갚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의 의로운 삶이 우리의 불의한 삶을 대체합니다. 그 형벌은 흠 없는 아들에게 떨어졌고 우리는 결백하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요구하는 대가가 지불되었으므로 법의 정의가 유지됩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공의로우시고 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16). 우리는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에 감동되어 그 제안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으며, 과분한 용서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게 한 우리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겸손히 간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용서받은 것에 안도감을 느끼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존경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십자가 발을 떠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러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확립되면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의의 망토를 보십시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겹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니라” (사 61:10).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계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그러한 선언을 받을 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선언됩니다.

1)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자량이 어디 있느냐?

A.: “자량은 어디에 있습니까? 삭제되었습니다. 왜 법인가? 작품에서? 아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3:27).

칭의의 역사에서는 사람의 자량이 완전히 배제됩니다(롬 3:27). 그가 용서를 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행한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의를 선물로 받는다는 생각은 귀한 생각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이 단순하고 놀라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어둡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힘의 원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성경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선물로 간주되지 않고 빛으로 간주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롬 4:2-5).

화요일

자아의 죽음

죄 많은 인간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과 현저한 대조를 이룹니다. 바울은 예수를 받아들이기 전 죄인의 삶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2, 3). 그리스도와 죄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전 삶, 즉 죄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어떤 하인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누가복음 16:13).

1) 성경에 따르면 누가 죄로부터 실제로 의롭게 되는가?

답: “죄 가운데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살리요 ...”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경험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죄의 삶에 대해 죽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녀와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늘에서 새 생명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동일한 능력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 (골로새 3:1-3).

이 죽음은 어떤가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 있는 줄로 여기라” (롬 6:11). 싸움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성서에 순종하도록 감동을 줄 것이며, 우리의 타고난 성향은 우리로 하여금 “옛 사람”을 부활시키고 고대 관습으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에 복종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삶에 대해서는 죽은 채로 남아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의 원칙에 순종하여 행동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갈 5:17, 18).

수요일

전달된 그리스도의 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롬 5:1).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그로 인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후에 우리를 그의 율법에 순종하게 하신 것을 아십니다. 용서받은 결과 우리 마음 속에 솟아난 사랑과 그분을 섬기려는 열망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롬 13:10).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완전히 용서하시며, 사람이 다시 계명을 범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무력한 상태에 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육체.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법을 세워 주고 순종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별말씀을요; 율법은 우리가 굳게 세우느니라” (롬 3:31).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외에도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신 때에는” (사 13:1)

4:4). 의의 영은 예수님에 의해 주어집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21), 22).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1)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은 무엇입니까?

답: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곧 진리의 성령이니라” (요한복음 14:17).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1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은 언제나 말씀과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고 말하면서도 말씀과 반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영은 항상 사람이 성경에 계시된 그분의 뜻과 조화롭게 행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은 진리입니다” (시 119:142)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달하신 성령께서 언제나 신자들이 그분의 율법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분의 계명에 가장 일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묵상하기: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시대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여하시도록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요일

성령의 약속

“우리가 주님을 알고 계속해서 알도록 하십시오. 그의 출발은 새벽처럼 확실하다. 그리고 그분은 비처럼,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호 6:2, 3).

성령은 물에 비유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38, 39). 그러므로 인간에게 성령을 부여하시는 것은 땅에 내리는 비에 비유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밀을 심는 일은 “이른 비”라고 불리는 첫 비가 내리기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식물은 자라서 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다가 추수 전 마지막 비가 내렸는데, 그 비가 곡식을 익게 했습니다. 그 비를 “늦은 비”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에 수확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구원의 계획에 대한 살아 있는 교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부활하신 후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시대 초기에 교회의 영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내린 이른 비였습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그분의 성도들을 찾으시며 큰 수확을 거두시기 직전에 그분은 다시 그분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늦은 비는 땅에 있는 사람들의 추수를 익게 하는 늦은 비가 되리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오사 밀을 모으시려 함이니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바울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부어진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이 들은 십자가에 못 박하신 그리스도의 설교와 그들이 그 메시지를 믿었을 때 받은 선물을 상기시키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하신 모습이 누구의 눈앞에 나타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3:1, 2)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를 보고 영접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호세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 예수님을 알라고 권고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외출은 새벽빛처럼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비처럼,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성령의 최종적이고 가장 풍성한 부어주심은 그분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꾸준히 아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마침내 수확할 때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셋째 천사가 가리킨 그룹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들은 준비될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주장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들은 죽음을 겪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옮겨질 것입니다. 호세아의 조언은 우리가 그들 가운데 속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서 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갑시다! 아멘!

금요일

“우리에게 주님을 알리고 계속해서 알아가십시오” 오세. 6:2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생애의 여러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안에 계셨으니” (요한복음 1:1 - 원본인 Tyndale의 번역에 충실함) 그런 다음 성경은 그분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작은 산이 생기기 전, 하나님이 아직 땅과 그 밭도, 세상의 흙의 시작도 이루지 아니하셨을 때에 내가 낳는 나라” (잠 8:25), 26). 이 탄생은 “영원한 날에” 일어났습니다 (미 5:2). 그때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빌 2:6)로 존재하셨고, 약 2천년 전 “말씀이 육신이 되” (요한복음 14:8) 때까지 존재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도 그를 지극히 높이셨느니라” (빌 2:7-9). 그리고 부활 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대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으셨느니라” (히 5:10). 그곳에서 그는 오늘날까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딤후 2:5)로 남아 계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성령의 모든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주제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 더 깊이 탐구할 수 있습니다.

영광과 선하심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어 죄 많은 인류의 수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으로서 자신을 낮추심으로 더욱 낮아지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스스로 담당하시고 가장 악한 죄인으로 간주하심으로 더욱 낮아지십시오. 그러므로 내려와서 죽음을 당하고, 첫째 사망의 잠에서 안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에게는 불뭇에 해당하는 둘째 사망도 있게 됩니다. 온유하신 어린 양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위해 굴욕의 사다리를 내려오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듯이 하늘로 올라가 우리를 위해 계속 일하고, 고통을 겪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며,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그분의 말씀에 약속된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 명상의 주제입니다. 그러한 숭고한 진리를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잃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흡수하고, 그분의 사랑에 젖어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느니라. , 저와 같은 형상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느니라” (고후 3:18).

토요일

요약

이번 주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담긴 복음의 기본 진리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행위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에 의해 의롭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 귀중한 생각은 결코 우리 마음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복된 경험이 일어나려면 우리는 죄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을 통해 세상은 매력을 잃고 우리는 사랑과 정의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옛 생활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받고 의롭게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달하시고,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항하여 행동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알수록, 그분이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어 우리가 하늘 구름 속에서 지나가지 않고 그분을 볼 수 있도록 준비시킬 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으로.죽음으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변화된 모든 사람

그들은 이 모든 단계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들의 지식을 세상에 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전할 마지막 은혜의 기별은 신성한 사랑의 품성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메시지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퍼져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마지막 사건, 123).

173, EGW). 아멘!